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 책임과 함께 걸어온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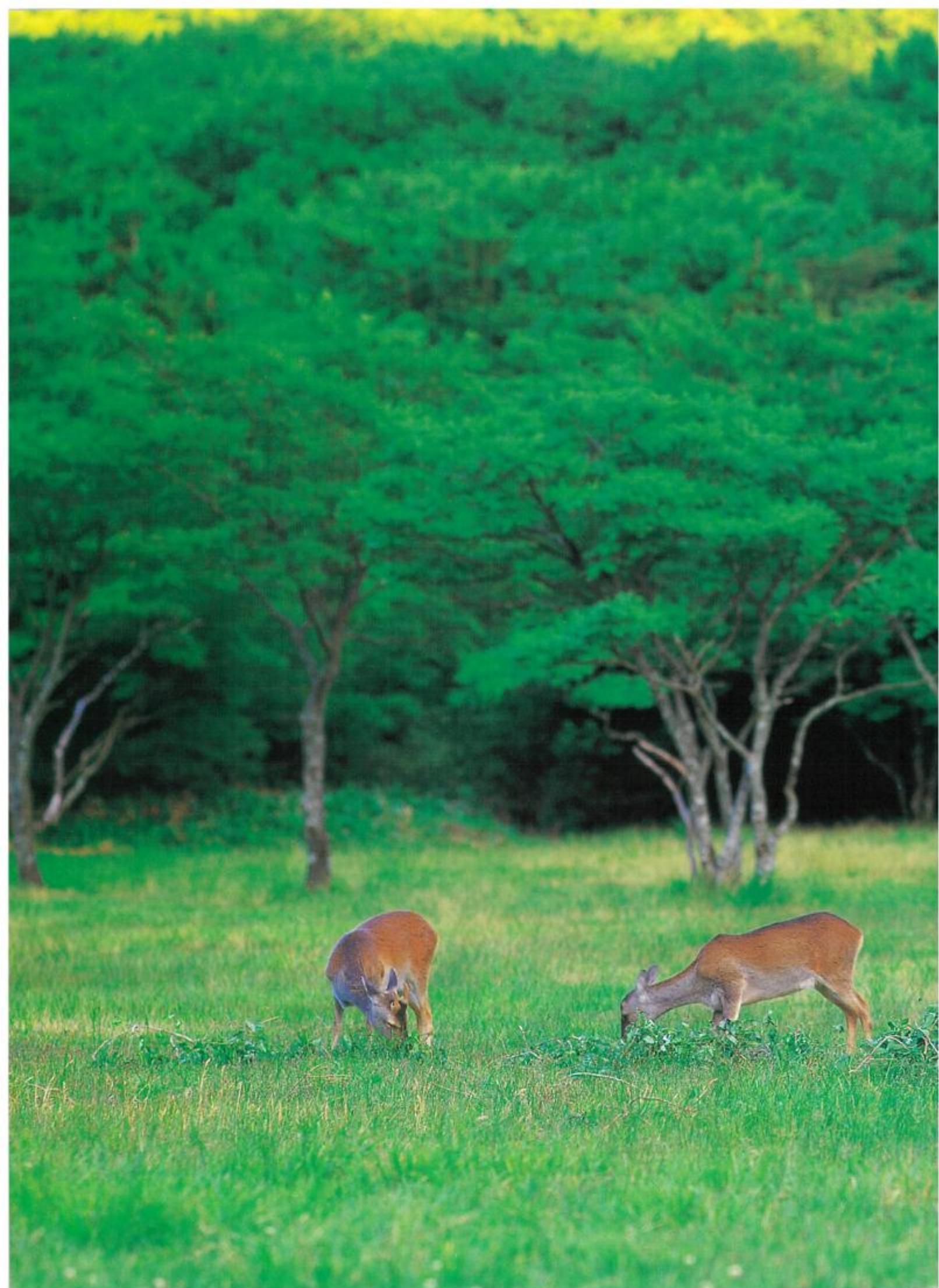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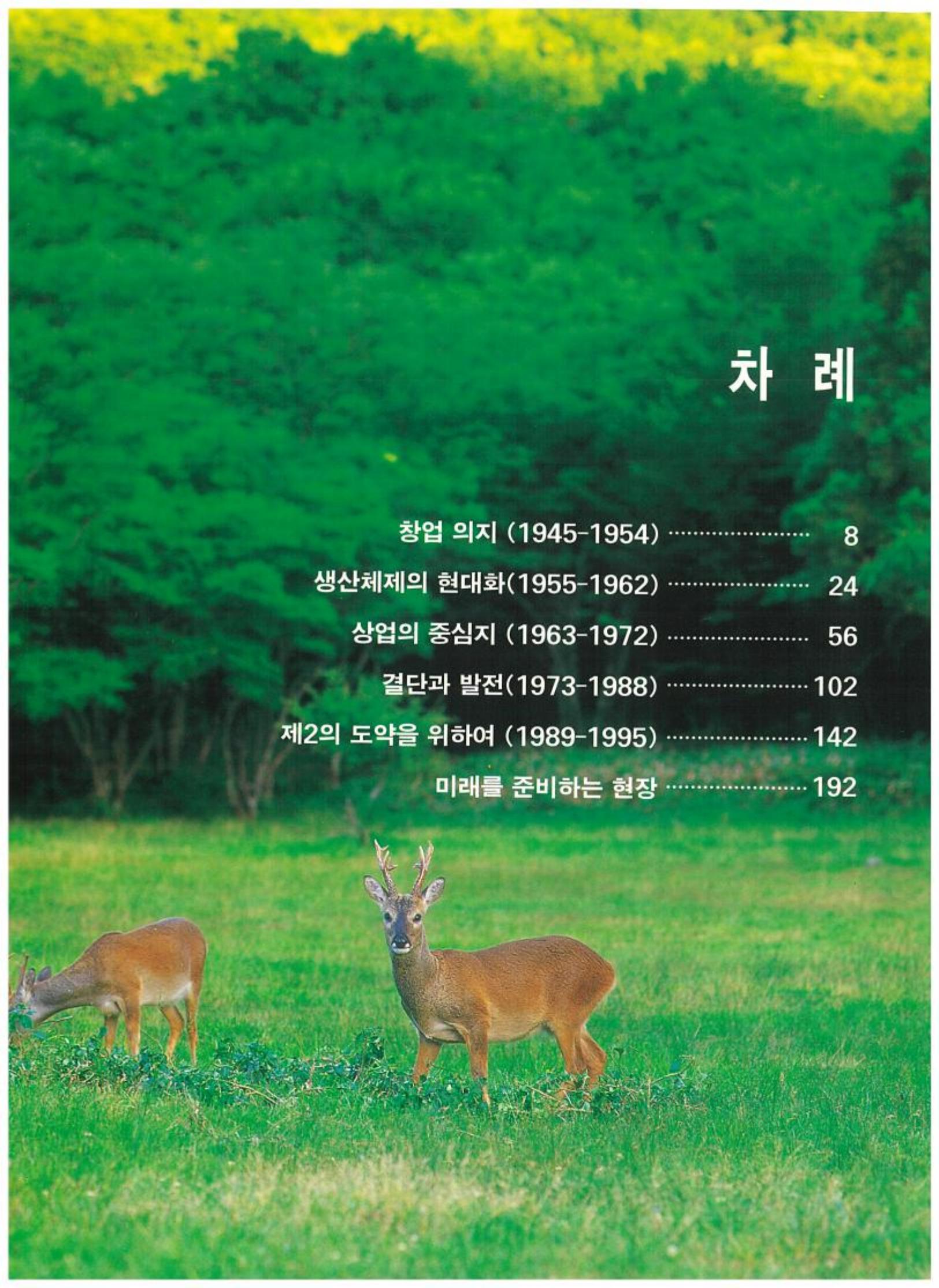
대한페인트·잉크(주)



이 사진집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 대한페인트 · 잉크(주) 임직원 일동

50<sup>th</sup>  
1945-1995





## 차 례

창업 의지 (1945-1954) .....	8
생산체제의 현대화(1955-1962) .....	24
상업의 중심지 (1963-1972) .....	56
결단과 발전(1973-1988) .....	102
제2의 도약을 위하여 (1989-1995) .....	142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	192



창업주 한정대 회장

# 인사말씀

우리회사가 “제조업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가치로 올리면서 창업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창업하던 시기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던 해였으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된 모든 이들의 고통이 한가운데 염던 때였습니다. 저는 이런 와중에서 제조업의 부흥과 발전이 그리고 책임의식을 견지하는 것이 참된 애국의 길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무지한 국민의식을 성장시키는 데는 내나라 문자와 내나라 책을 보급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철학을 자랑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잉크산업이 어느 선진국, 어느 기술에도 뒤지지 않으며, 교과서를 비롯한 출판의 선진화를 달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념과 철학이 굳건하고 활달했던 바 크다고 자부합니다.

국력은 바로 민족자존에서 출발함은 매우 지당한 결론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경영에는 수없는 난관과 시련이 접철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이러한 사업보국에의 신념을 잊지 않았으며,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역경을 헤쳐 나오는 데 어떠한 결단도 결코 늦추지 않았습니다. 회현동 시절, 부산피난시의 범일동 시절, 그리고 조화산업과 페인트산업을 일으킨 문래동공장 시절, 프라스틱과 사출성형제조업이 주류를 이루던 구로동 시절, 그리고 해외기업과 합작회사를 만들고 국내 최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지금의 안양공장까지 - 이 모든 기업의 발전은 바로 기업에의 열의와 결단을 위한 시련의 순간 그리고 그 연속이었던 것을 회상케 됩니다.

오늘 이러한 순간들의 편린들을 정성스레 모아 ‘사진으로 보는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엄정한 역사의 진실이요, 과정의 결실체입니다. 기업의 사진 하나 하나에는 우리 노루표의 정신이 담겨 있으며 바로 피와 땀의 현장을 생생히 재현시키는 감동이 녹아 간직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이 사진집의 내용이 다소 자료의 유실로 충분히 게재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기업

역사의 노정을 조금도 색이 바래지 않고 나타내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업역사에의 진실과 노력 - 나는 오늘 무한한 애착을 갖으며 이 사진들의 의미를 다시 읊미하고자 합니다.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업의 규모를 떠나 초우량기업, 제조업에의 사업보국이라는 신념이 재충전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미래화에 대한 주사위는 이미 우리기업과 우리임직원 모두에게 던져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 뿐입니다. 각자가 회사에서 맡은 일을 책임지고 정성과 열의를 다할 때 이는 분명히 노루인의 것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기업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도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엮은 사진들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결정체가 될 것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50년간이라는 기업역사에서 적, 간접으로 회사에 도움을 준 거래처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전, 현직 임직원의 노력에 진정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쉼없는 전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작은 사진첩이 앞으로 일류기업으로 계속 가꾸어 나갈 우리의 자랑스러운 노루인들에게 감히 긍지를 갖고 신념을 펼쳐나가는 데 산 증인이 될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1995. 11. 1  
회장 한정대

1945-  
1954

# 창업 의지

'해방이 되고 싶었던 말과 글을 되찾았으나  
잉크와 종이가 부족했다.' — 창업의 動機는  
어찌면 단순했다. 그러나 창업의 産苦를 이겨낼  
수 있는 의지는 간단하지 않았다. 그것을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책임감으로 극복했다.

## 1945

- 대한오브세트잉크 창업(會賢洞 1가 34-4, 31-4번지),  
墨잉크 생산 시작(10月)
- 조선서적주식회사에 인쇄잉크 납품, 대한오브세트잉크로 인쇄한  
乙 5圓券 · 乙 10圓券 발행(12月 10日)

## 1946

- 전매국인쇄공장 · 시중 인쇄소 등에 잉크 납품, 원료부족으로  
생산에 애로
- 黃 · 青色 顏料 自家生產에 성공
- 국내에서 유통되던 日本銀行券 동결 법령 공포(2月 21日)

## 1947

- 업계 최초로 녹색잉크 개발
- 대한오브세트 녹색잉크로 인쇄한 戊 100圓券 발행(6月 3日)
- 퇴계로에 영업소 개설, 店頭販賣 시작(9月)

## 1948

- 大韓民國政府 수립(8月 15日)

## 1949

- 大成木材에서 발생한 불로 회현동공장 全燒(12月)

## 1950

- 회현동공장 복구(4月 9日)
- 한국은행 발족(6月 12日)
- 6 · 25 전쟁 발발

## 1951

- 韓鼎大 社長, 재무부직할인쇄공장 기술총탁으로 선임(4月)
- 부산 범일동에서 조업재개, 재무부직할인쇄공장에 잉크 납품(5月)
- 한정대 사장,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감사장 수상(9月)

## 1952

- 남포동 영업소 개설(釜山 南浦洞 3가 18번지)
- 株式會社 大韓잉크製造公社 설립(8月 26日)
- 등사잉크 주문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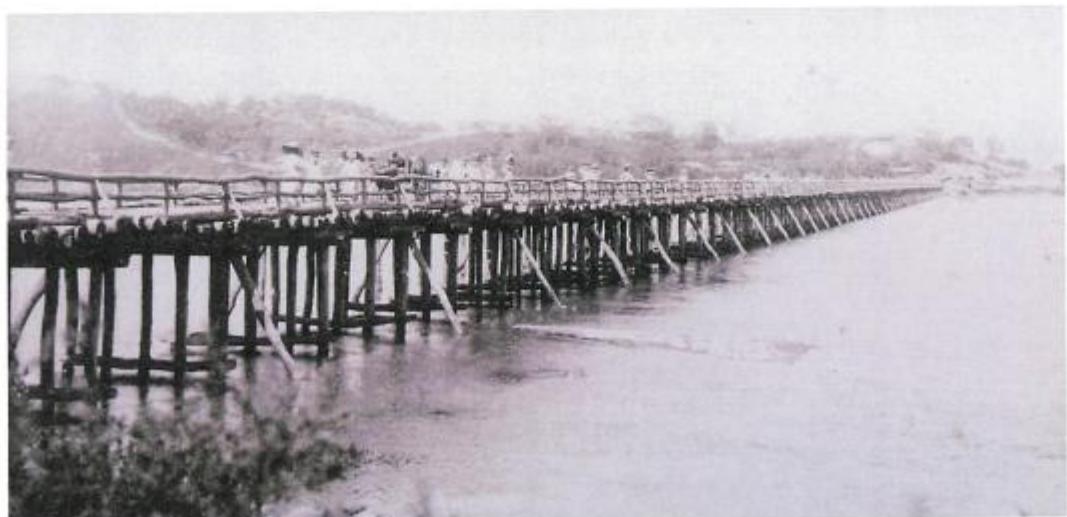
## 1953

- 美國 셔윈 윌리암스社와 대리점 계약 체결(10月)
- 신클레이어 발렌타인社로부터 인쇄잉크제조 기술 도입(10月)
- 獨逸에서 54KW 발전기 도입
- 부산 국제시장 대화재(1月 30日)
- 휴전협정 조인(7月 27日)
- 정부, 서울로 환도(8月 15日)

## 1954

- 韓國產業銀行에서 시설자금 융자(3,500만환)(10月)
- 회현동 서울사무소 재개(12月)
- 大韓印刷잉크工業協會 결성(7月 26日)

함경남도 함흥시의 서쪽을 흐르는 城川江, 그 위에  
놓인 萬歲橋의 한쪽은 속칭 '다리건내'라는 西上里로  
건너간다. 이 곳은 대한페인트·잉크(주)의 창업주  
韓鼎大 회장의 고향이다.



1



2

1.만세교  
2.함흥 대화정 거리



한정대 회장

해방이 되자 우리글 서적과 행정서식 등 각종 인쇄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해방 전 국내에서 잉크를 생산하던 조선잉크공업주식회사와 조선잉크주식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남아 있던 잉크 재고도 고갈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정대 회장의 외사촌형으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던

林炳哲 씨가 한회장에게 인쇄잉크를 제조하라고 권했다. 15세 되던 해에 일본으로 건너가 1941년 3월 오사카(大阪) 공고 용용화학과를 졸업하고 후지(富士)화학연구소에서 화학기사로 근무하다 해방되던 해 9월에 귀국한 한회장의 지식과 기술을 십분 활용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한회장은 인쇄잉크를 제조하기로 결심했다. 외사촌형의 권유도 있었지만, 한회장 스스로 자신이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945년 10월.

한회장은 서울 회현동 1가 34번지에 '대한오브세트잉크'라는 간판을 걸고 잉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을지로 2가와 3가 사이에 잉크 소매상들이 밀집해 있어 회현동은 사업장의 위치로는 적격이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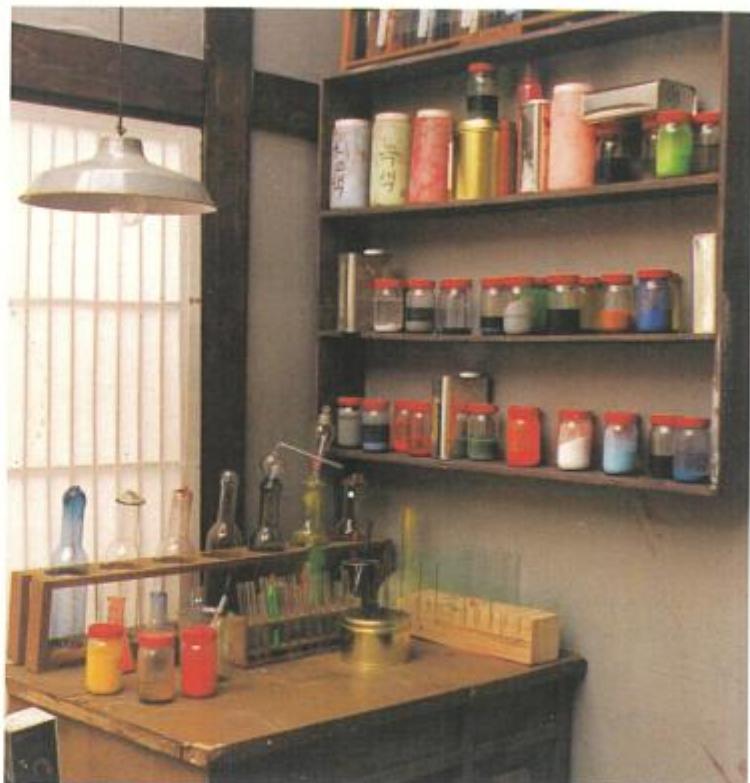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5

1945-1954

술과 헌 드럼통, 화장품회사에서 사용하던 三本롤밀 등이 생산시설의 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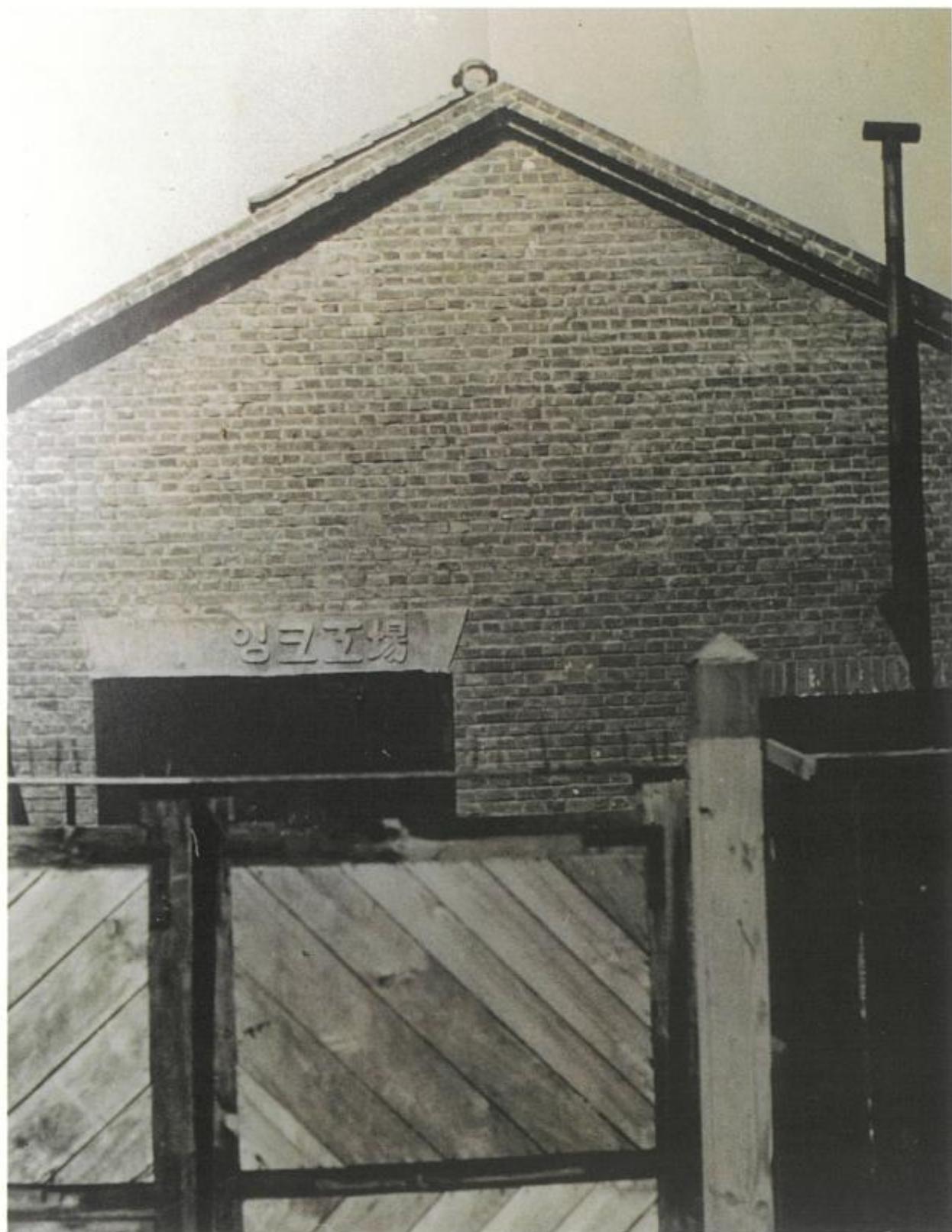
1.창업 당시의 KETTLE  
2.실험실



2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7

1945-1954

1945년 12월부터 乙 10圓券을 시작으로 대한오브세트잉크로  
인쇄된 조선은행권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교과서와 관공서의  
인쇄물에도 대한오브세트잉크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1949년 12월  
길 건너 목재소에서 일어난 불이 공장과 생산시설을 모두 태워  
버렸다. 재기하지 못할 거라는 주위의 예상을 뒤엎고 1950년 4월  
9일 9일(음력 2월 23일) 상량문을 다시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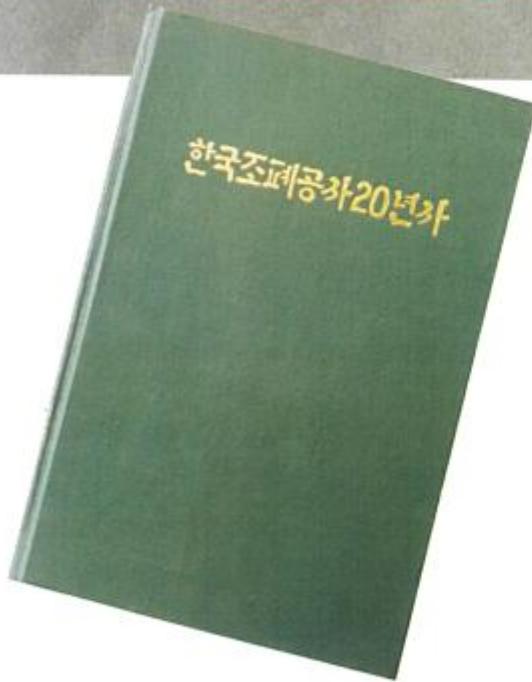
1.乙 10圓券 등 대한오브세트잉크로  
인쇄한 지폐  
2.회현동공장(1950)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서로 티격태격하기는 했지만 설마 동족간에 전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전쟁의 충격은 그래서 더욱 컸다. 한회장과 직원들은 악몽같은 3개월을 숨어지내고 1951년 1월, 1·4 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했다.

1. 서울역을 향해 가는 북한 탱크들.  
뒤에 남대문이 보인다.
2. 폐허가 된 명동(1950. 9.8)

판기(手給式單色平版機) 1대, 도합 4대가 통관(通關)이 되지 않은 대로 사변을 맞이하게 되어 부산의 보세 창고(保稅倉庫)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통관시켜 공장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는 참으로 불행 중 다행한 일이었으며, 사실 이들이 그 후 한국 은행권을 제조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임시적인 것이었지만 좌우간 재무부 직할 인쇄 공장이 예정대로 3월 1일부터 가동되어 한국 은행권이 제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독립된 조폐 기관의 효시임과 동시에 한국 조폐 공사의 기틀을 마련한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때 잉크에 관해서는 대한 잉크 제조 주식 회사의 협조(協調)를 많이 받았다. 특히 대한 잉크 주식 회사의 사장 한 정대(韓鼎大)씨는 재무부 직할 인쇄 공장의 기술 촉탁(技術囑託)으로 되어 잉크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지도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지도 밑에 잉크 제조 기계로서 연육기(練肉機) 2대(1대는 구입, 다른 1대는 크레용 공장에서 임차)



부산으로 피난간 대한오브세트잉크에게 예상보다 빨리 사업 재개의 기회가 왔다. 정부는 군비 지출과 유엔군에 대한 대여금 등 전쟁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1950년 말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506번지에 「재무부직할인쇄공장」을 긴급하게 설치하고, 한회장을 기술 촉탁으로 임명했다. 「조폐공사20년사」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때 잉크에 관해서는 대한잉크제조주식회사의 협조를 많이 받았다. 특히 한정대 씨는 재무부직할 인쇄공장의 촉탁으로 되어 잉크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지도하여 주었다.…”



대한잉크는 西面 범내골에 있던 창고를 빌려 1951년 5월 경부터  
잉크를 생산해서, 재무부직합인쇄공장에 주로 납품하다가 1년쯤 지나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면서 부산 등지의 시중 인쇄소에도 잉크를  
공급했다. 1년 후 휴전회담이 오고가면서 사회가 점차 안정되자  
대한잉크는 1952년 8월 26일 株式會社 大韓잉크製造公社로  
등기했다.

1.부산 西面 범내골  
2.서울 충무로 거리(1953. 5. 7)



1



2

1



2



3

1953년 초에 복구작업이 시작되자 정부에 앞서 서둘러 서울로  
복귀하는 업체들이 있었다. 그러나 잉크만 제조해서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한회장은, 1953년 10월  
서울이 아닌 美國를 향해 떠났다. 미국, 영국, 독일(당시 서독),  
불란서 등에서 현대식 제조공장을 둘러본 한회장은 새로운 공장의  
건설을 계획했다.

1. 셔원윌리암스社

2. 공장 내부

3. 잉크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회장



1955-

1962

# 생산체제의 현대화

현대식 생산시설을 갖춘 문래동공장을  
건설했다. 이는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전환한  
'산업혁명'에 비유할 만했다. 넘치는 기계의  
힘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그 여력으로  
도료를 함께 생산하기 시작했다.

## 1955

- 문래동공장 건설 착공(永登浦區 文來洞 4가 43번지 · 44번지)
- 잉크실 · 발전실 준공(10月 5日)
- 바니쉬실 · 안료실 · 유류창고 준공(11月 26日)

## 1956

- 大韓잉크製造株式會社로 상호 변경(1월 12日)
- 사원공개채용 실시(1月)
- 도료 시험생산 시작 (1月)
- 크롬 엘로우 · 라이트 엘로우 · 알루미나 등의 안료 자가생산
- 정부, 경제부흥 5개년 계획 발표(3月 20日)

## 1957

- 광택잉크 · 광택바니쉬 개발(3月)
- 美연방규격도료 생산(4月)
- 노루표 상표등록(8月 7日)
- 선전 직매장 설치(을지로 2가 120번지)(12月 5日)

## 1958

- 내후성 측진시험기(Weather-O-Meter)등 가드너(Gardner) 시험기기 수입

## 1959

- 문래동공장에 도료실 신축(1月 20日)
- 부산 영업소 이전(中區 東光洞 4街 25番地)(10月 15日)
- 한정대 사장, 韓國印刷잉크工業協會 會長에 피선(10月 31日)

## 1960

- 社訓 제정(1月)
- 수출입업자 등록(5月 13日)
- 4·19 학생의거(4月 19日)
- 尹潽善 대통령 취임(8月 12日)

## 1961

- 사업목적에 건축 및 도장업 추가(1月 10日)
- 周南塗裝公社 설립(6月)
- 문래동공장에 사무실 및 연구실 신축(9月 14日)
- 5·16, 軍事革命委 구성(5月 16日)

##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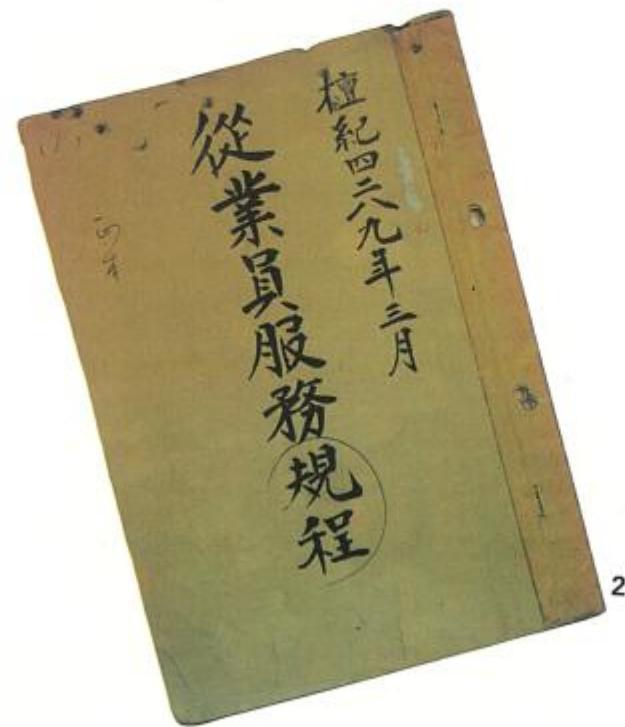
- 한정대 사장, 韓國페인트·잉크工業協同組合 초대 이사장에 피선(3月 20日)
- 한정대 사장, 中小企業協同合中央會 理事에 피선(5月 14日)
- 한정대 사장, 韓國物品車納組合長에 피선(6月)
- 을지로사옥(乙支路 3街 75番地) 착공(9月 26日)
- 부산 영업소(출장소), 東光洞 4街 18番地로 이전(11月 1日)
- 국산품 전시회에서 서울시장으로부터 도료부문 우량국산품으로 선정(12月)
- 韓國페인트·잉크工業協同組合 설립 인가(4月 14日)

한국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1955년 4월에 영동포구 문래동 4가  
44번지에 문래동공장을 착공했다.



1

1. 시공식(1955. 4)
  2. 종업원 복무규정(1956)
  3. 본관 건물 앞
- 한정대 회장(가운데)의 원편으로 황삼현 당시  
부사장, 임영수 당시 부산출장소장



'노루는 절대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 노루와 같이 다른 회사를 해치지 않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 한 회장이 독일의 화랑에서 구한 노루 그림을 회사의 상표로 사용한 까닭이다. 문래동 공장이 가동되면서 모든 제품에 '노루표' 상표가 붙자, 대한잉크는 이때부터 '노루표 잉크', '노루표 페인트'로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



1

1. 노루표 배지(1957)와 상표등록증(1959. 4)  
2. 준공을 앞둔 문래동 공장(1955. 10)



2





1



2



3

잉크실, 발전실에 이어 바니쉬실, 안료실,  
유류창고 등이 속속 준공되었다.



4

1. 잉크실
2. 안료실
3. 바니쉬실
4. 안료 혼합(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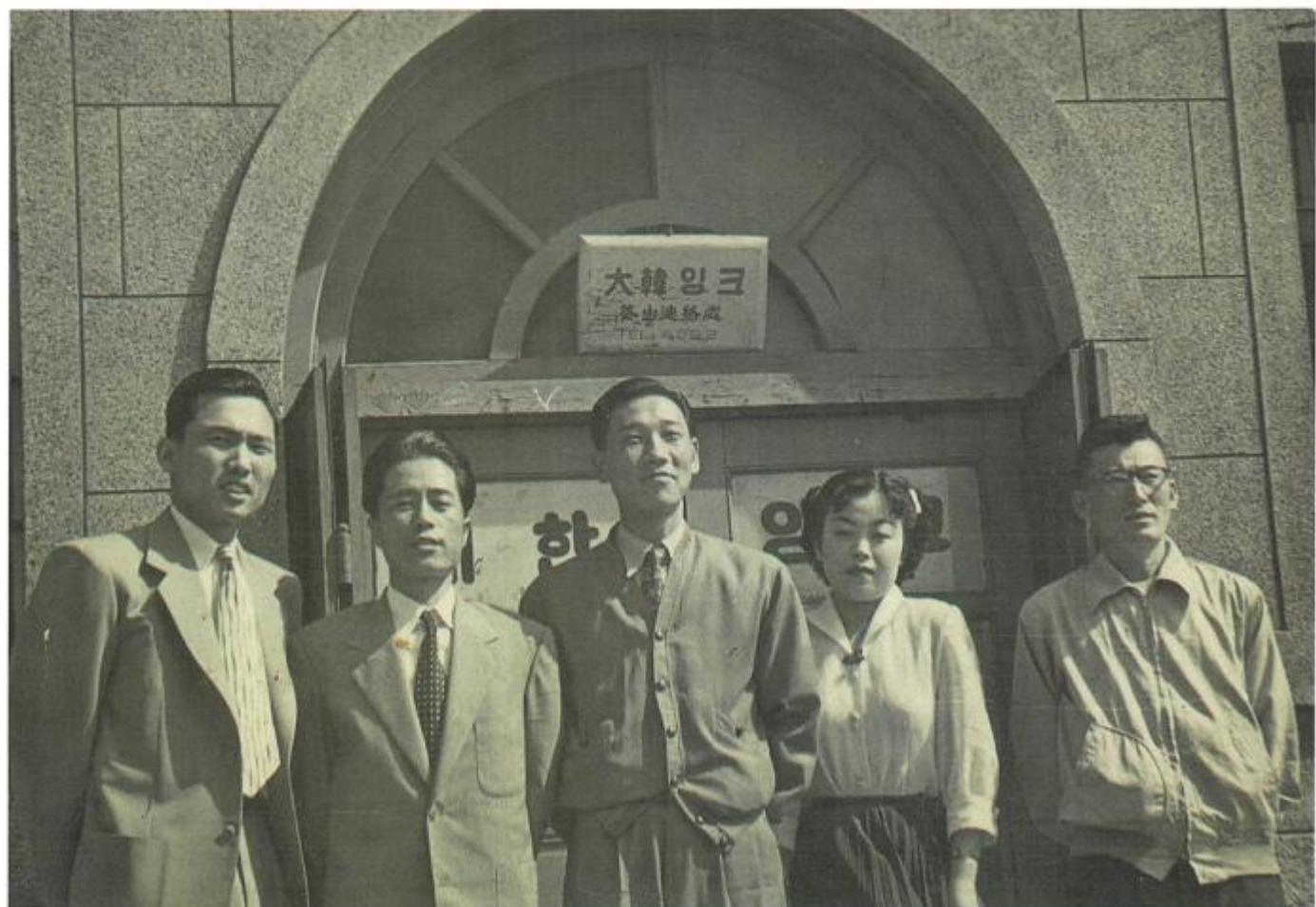


문래동공장은 1955년 11월에 준공되었다. 이때부터 11월 1일을 창업  
기념일로 정하고, 이듬해 1월 12일에는 상호를  
'大韓잉크製造株式會社'로 변경했다.



전직원 기념촬영(1956)

부산 범일동공장은 문래동공장이 가동되면서 생산을 중단했다.  
大廳洞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가, 1959년 10월 15일 東光洞으로 이  
전하면서 부산출장소가 되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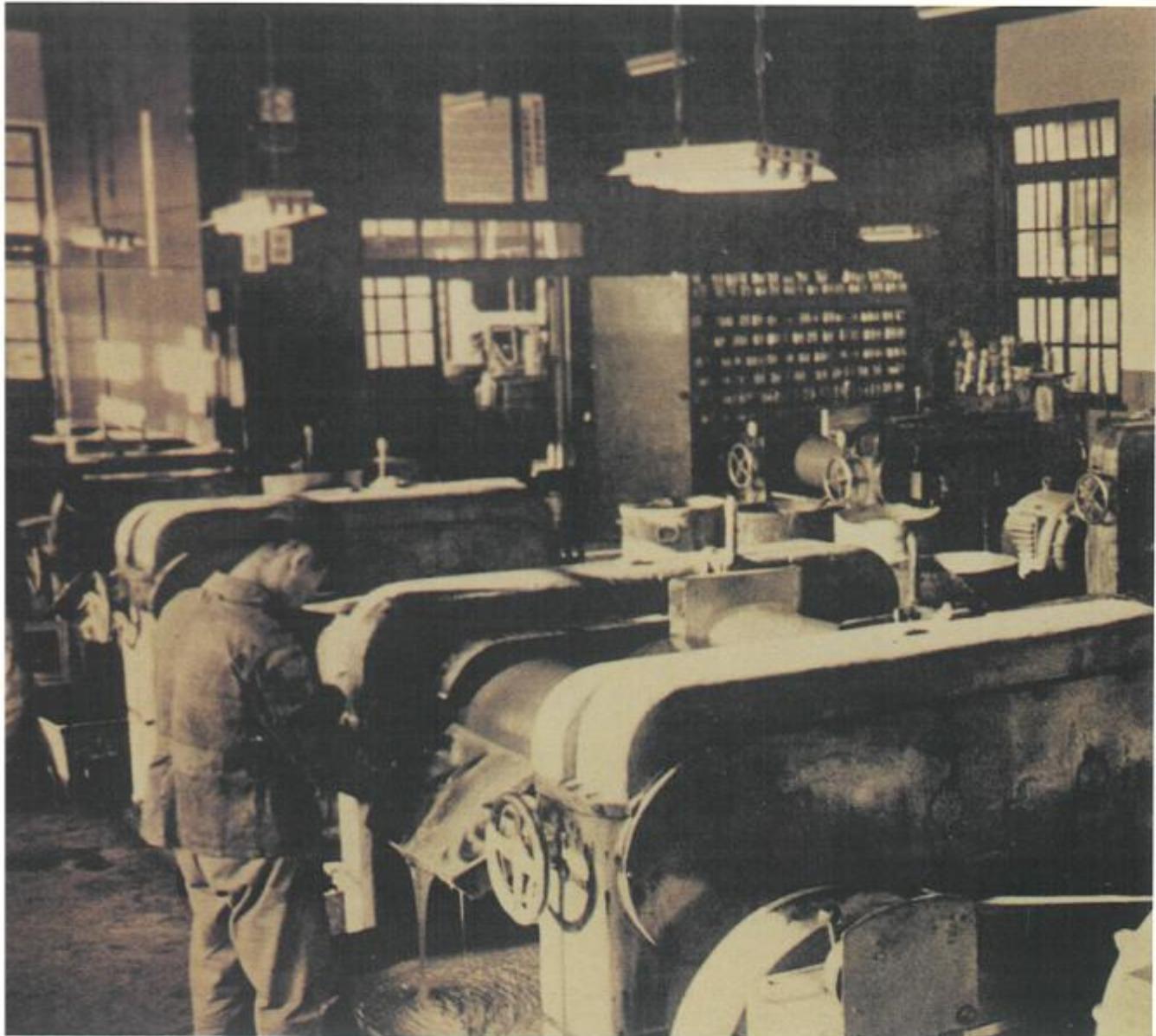
2

#### 1. 대청동 연락사무소

문위에 '대한잉크 釜山 連絡處 Tel 4223'  
이라고 쓴 안내판이 걸려 있다.

#### 2. 동광동 출장소

잉크 연육실



1950년대 중반, 출판계의 불황으로  
문래동공장에 잉크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당시 잉크 수요량에 비해 문래동공장의  
생산능력이 너무 컸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회장은 도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시설을 놀리지 않고, 인쇄잉크의  
비수기인 봄·여름·가을에 도료에 치중하고  
도료의 비수기인 겨울에서 이른봄까지  
인쇄잉크에 치중한다는 것이 한회장의  
생각이었다.



당시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사용하는 물자는 '미국연방규격' 또는 '미군규격'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국내에서 미연방규격 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었다.

1957년 4월, 대한잉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연방규격의 외부용 조합페인트(FED SPEC TT-P-102 코드랜드 그린)를 생산, 미8군에 납품했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39

1955-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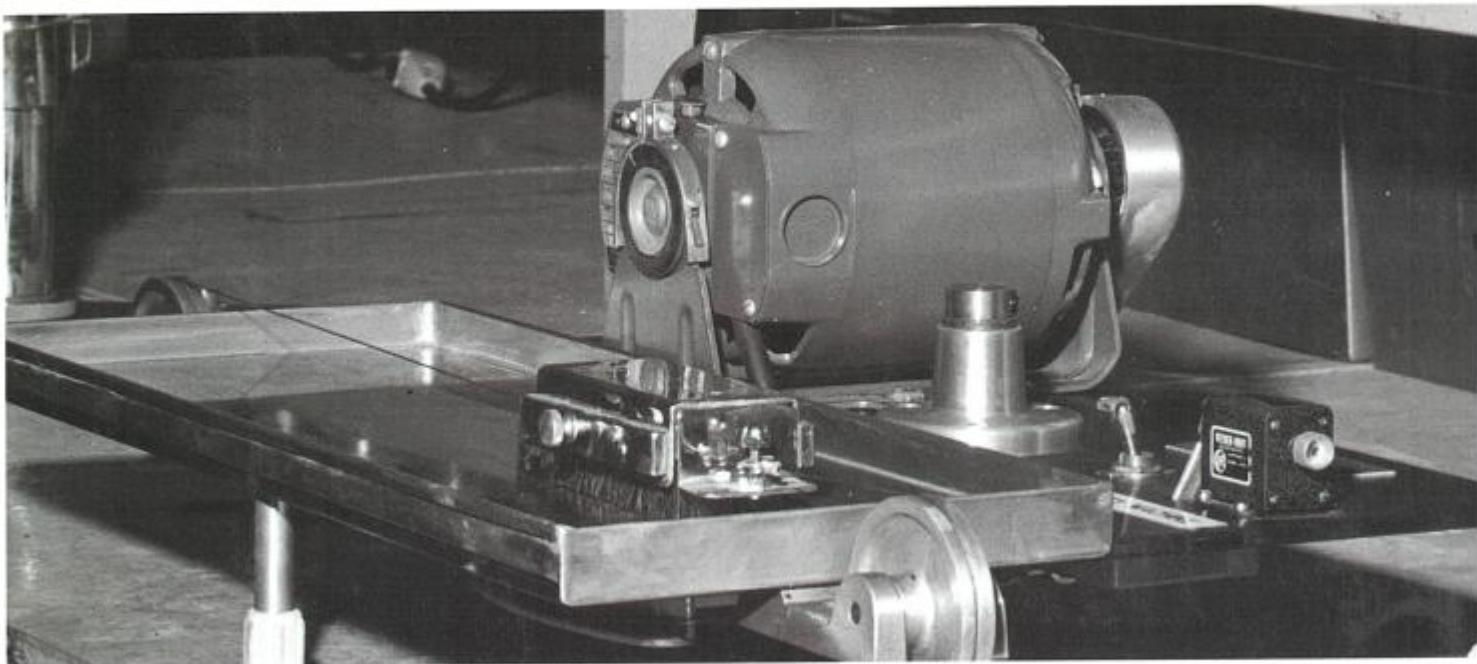


2

1.문래동공장 정문(1960. 1)  
2.문래동공장을 떠나는 납품차들



-40



미8군 납품이 시작되고, 1960년 말에 대한잉크는 10만불에 상당하는 가드너(Gardner)시험기를 구입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울 때라 주위에서 만류했지만, 한회장은 끝내 시험기를 구입했다. 1961년 경 주한미군이 발주한 약 100만불에 상당하는 국방색 도료를 거의 다 생산했을 때, 모든 군납제품에 대해 일본 요꼬하마(横浜) 화학연구소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시가 미국방성으로부터 떨어졌다. 그런데 픽업(Pick Up)해 보낸 샘플에 대해 일본 요꼬하마연구소가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가드너시험기로 품질에 이상이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한 후, 한정대 회장은 강력하게 재시험을 요구했고, 당시 요꼬하마 연구소에도 없는 가드너시험기를 보유하고 있던 문래동공장에서 재시험이 이루어졌다. 일본인 2세였던 요꼬하마연구소 소장 등 일본인과 미군이 참관한 가운데 30여 일간 실시된 재시험 결과는 '합격' 이었다.



1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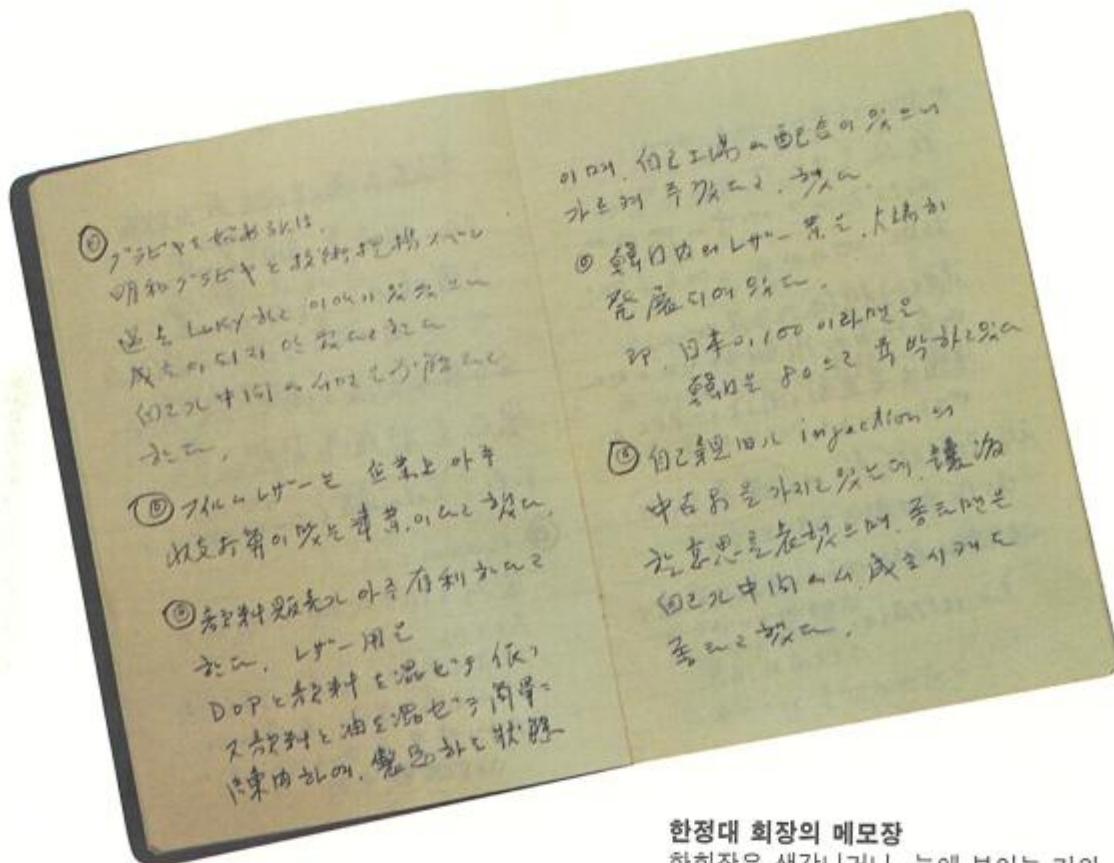


1

1. 문래동공장 안내 입간판-DAIHAN PRINTING INK MFG  
(大韓印墨製造株式會社) 시절
2. 생산제품들(1959)  
도료제품에는 '대한印墨주식회사 페인트部謹製'라는 글자가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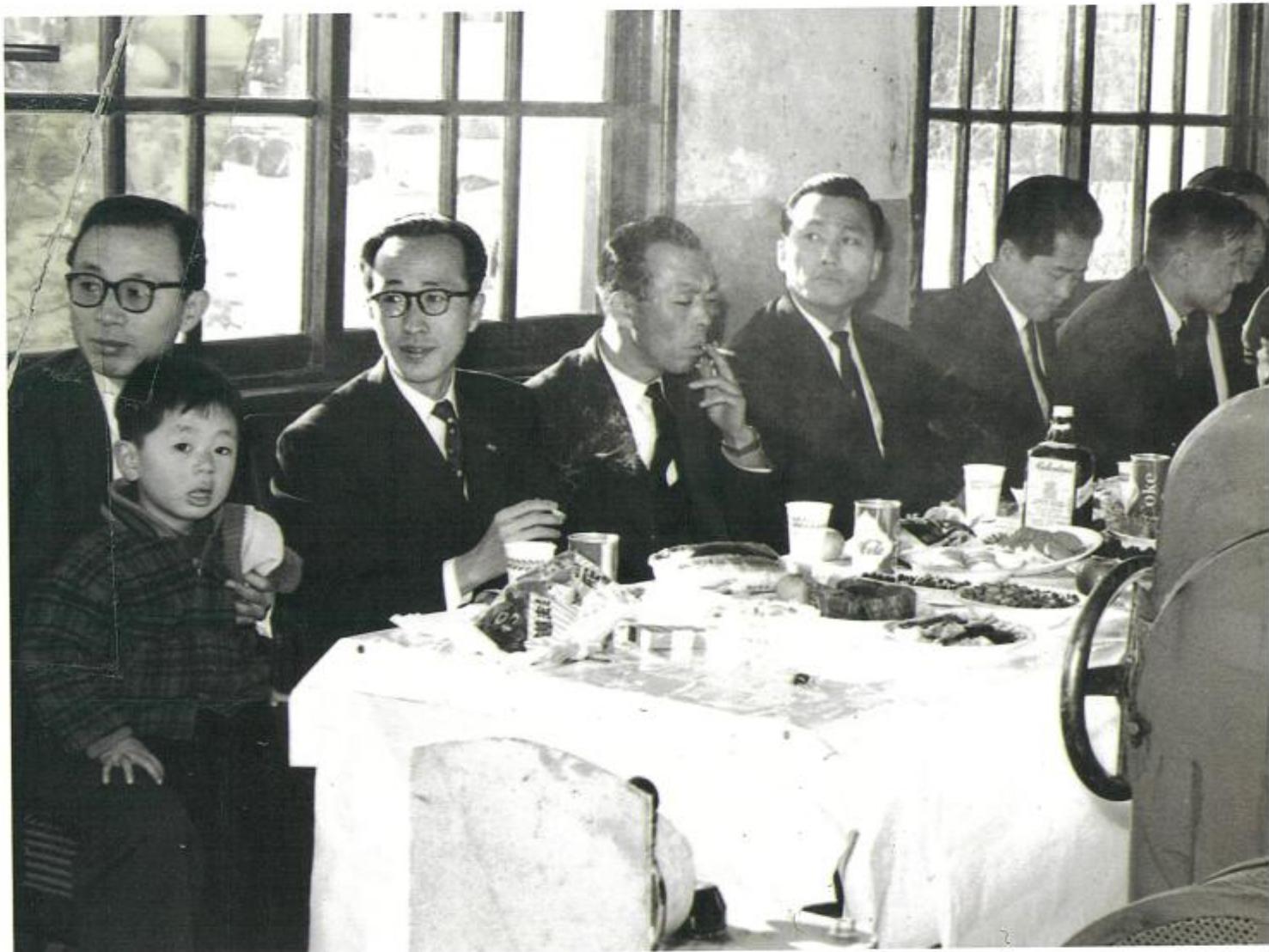




## 한정대 회장의 메모장

한회장은 생각나거나,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을 메모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대한잉크는 자금이 혀락하는 한 생산시설의  
증설에 온 힘을 쏟았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한정대 회장의  
持論이다.



—46

1

#### 1. 시무식(1961. 1.4)

사무실이 따로 없을 때였다.

#### 2. 연구실(196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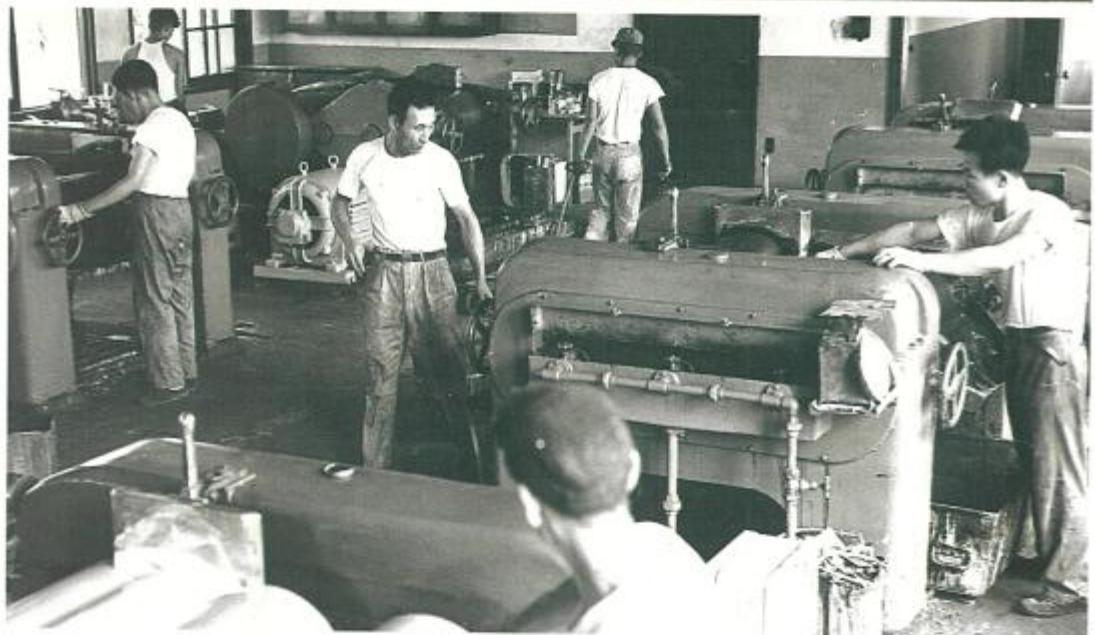
#### 3. 도로실(1961. 6)

#### 4. 배구하는 직원들



2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3



4

47  
1955-1962



4·19에 이은 5·16의 거센 변화가 있고 그 이듬해, 창립17주년 기념식(1962. 11. 1)



2

1

1.기념사를 하는 한회장  
2.우수직원 표창





어려운 시기일 수록 '우수한 제품'이 필요했다. 「노루톤」(발수성 수성페인트)은 비교시험도장에서 번번히 타사 제품을 제쳤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51  
1955-1962

2

1. 육군본부에 납품된 「노루톤」(1962)  
2. 「노루톤」 시범도장



1



2

휴일이면 서울 근교로 낚시를 다니던 한회장이 칠이 엉망으로 벗겨진 농협창고를 발견하고, 그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 창고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함석용 도료 '갈바온'으로 무상으로 칠해 주었다. 그 모습도 사진에 담았다.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한정대 회장이 찾아간 곳은 농협중앙회였다. 결국 대한잉크의 '갈바온'으로 전국의 농협창고를 새로 도장했다. 50년대까지 국내에 함석용 도료가 따로 없어 칠이 벗겨져 너덜거리는 간판 투성이었으나, '갈바온'의 개발로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1. 까맣게 녹은 농협창고

2. '갈바온'으로 깨끗이 칠한 농협창고(1962)



60년대 초까지 건축업자와 도장인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날림 도장공사를 서슴치 않고 있었다. 대한잉크는 1961년 1월 10일, 도장전문회사인 周南塗裝公社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올바른 도장방법을 보급했다. (주남도장은 1987년 6월 2일 해산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53

1955-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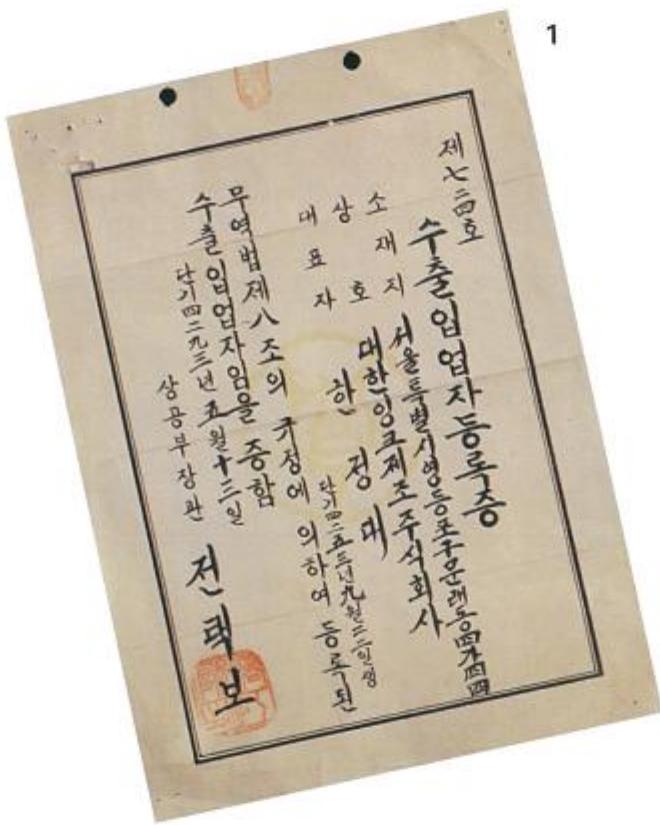
1

2



1.노루표 페인트로 USOM 주택을 칠하고 있다.  
2.USOM 주택

한국인쇄잉크공업협회(1959년 10월 발족)의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한정대 회장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섰다.



1. 수출입업자등록증(1960. 5)
2. 한국인쇄잉크공업협회 정기총회를 마치고(1960. 9. 23)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한정대 회장
3. 수출잉크 포장
4. 홍콩(香港)에 수출되는 대한옵셋잉크(1962)

2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55

1955-1962



4

1963-  
1972

# 상업의 중심지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핵심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 있다. 당시 인쇄상 및 도료판매상은  
물론이고 국내 상업의 중심지가  
을지로였다. 자금난 속에서도 때를 놓치지  
않고 그곳을 先占함으로써 발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 1963

- 을지로사옥 준공(1月 12日)
- 사보 '노루' 창간(1月 15日)
- 제1회 도장공 교육 세미나 개최(1月 20日)
- 大韓잉크 · 페인트 製造株式會社로 상호변경(1月 20日)
- 합성수지 음셋 광택잉크 '킹그로스' 와 '네오 그로스' 생산
- 油中水 에멀젼형 등사잉크 개발
- 대전출장소 개설(大田市 元洞 25-2)(2月)
- 社友會 발족(3月 19日)
- 회사를 상징하는 색채로 草原을 뜻하는 綠色 선정(4月)
- 광주출장소 개설(光州市 忠壯路 4街 19番地의 2)(4月 15日)
- 청량리, 영등포 등에 직매소 개설(5月 6日)
- 한국표준(KS) 표시제 실시(7月 10日)

## 1964

- 대구출장소 개설(大邱市 북성로 1가 35-3)(2月)
- 무늬코트와 윤전등사잉크 발명특허(5月 20日 등록)
- 전주특약점 개설(全北 全州市 高士洞 1街 337-1호)(7月)
- 방청도료 '메타론' '광택 인쇄잉크' 발명특허(8月 20日)
- '무늬코트', 철도청 주최 국산용품 전시회 도료부문 우량상 수상(9月 24日)

## 1965

- 한정대 사장, 한국물품군납조합으로부터 감사장 수상(2月 24日)
- 防汚船底도료 '마린코트' 발명특허(4月 20日)
- '도료 및 인쇄잉크 종합 전시회' 주최(8月 22日 ~ 8月 31日)
- 무늬코트, 서울시 우량국산품으로 선정(12月 16日)

## 1966

- 도로표지용 도료, '빔코트' 발명 특허(1月 30日)
- 周南塗裝公社, 周南塗裝株式會社로 법인설립(2月 26日)
- 에멀젼수지(아크론 608) 국산화에 성공(6월 8日)
- 프라스틱조화 수출공장 착공(永登浦區 九老區 韓國輸出工業工團 3街區 2)(10月 1日)

## 1967

- 日本페인트株式會社로부터 에폭시수지 방충도료 제조기술 도입 인가(4月 14日)
- 방수성 보호도료 '워타론' 발명특허(4月 20日)
- 품질관리위원회 구성(9月 6日)
- (株)大韓造花工業社 설립(10月 17日)
- 구로공장 준공(12月 18日)

## 1968

- 도료업계 최초로 KS표시 허가획득(KSM-5310 · KSM-5311 · KSM-5318)(7月 10日)
- 플라스틱 화용이제판 매트 발명특허(7月 25日)
- 플라스틱조화,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에서 대통령 우수상 수상(9月 9日)
- 내수성 속건바니쉬 '하이라크' 발명특허(9月 16日)
- 大日本잉크化學工業(株)와 합판용도료 원료 및 기술지도 계약(9月 23日)
- 경인고속도로 개통(12月 23日)

## 1969

- 내알칼리성 방수도료 '세라민' 발명특허(7月 31日)
- 대한조화, 뉴욕지점 개설(9月 27日)
- 대한조화, 플라스틱 인조파일 제조법 발명특허(11月 21日)

## 1970

- 직매소를 특약점으로 변경(3月 15日)
- (株)大協 설립(9月)
- 대한조화, 플라스틱사업부로 흡수 합병(9月 30日)
- 코리아프라스틱(株) 설립(10月 16日)
- 의장용 무늬도료 '하이텍스' 발명특허(10月 21日)
- 경부 고속도로 개통(7月 7日)
- 호남 고속도로 개통(12월 30日)

## 1971

- 大日本잉크化學工業株式會社와 인쇄잉크 및 안료제조 기술제휴(12月 2日)

## 1972

- 구로공장 3층으로 증축(11月)
- 사보 '노루' 복간(11月 1日)
- '노루 산악회' 발족(11月 12日)
- 대협, 수출공로 표창(11月 30日)
- 정부, 기업사채동결 조치(8月 3日)
- 기업공개촉진법 공포(12月 30日)



1. 을지로사옥(1963. 1)  
2. 개관식에 참석한 한회장의 가족  
3. 신축중의 을지로 사옥

1963년 1월에 영업의 본거지를 회현동에서 을지로 신사옥으로 옮겼다. 당시 을지로는 인쇄상과 도료판매상은 물론이고 국내 상업의 중심지로, 영업력의 강화 등 사세 확장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61

1963-1972



1



2



3



1

을지로사옥 제품전시장은 영업의 교두보였다.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63

1963-1972



3



4

- 1.전시장
- 2.외국인 방문객
- 3.무역과
- 4.기획과

大韓日報株式會社  
社長人 韓 鼎 大  
7152 · 7153 · 7154  
37155 · 7156  
0498 · 1741 · 1933  
一九六三年一月十五日發行

# 노루

創刊號

親切對至誠  
相處互學修  
創意性急發  
迅捷進取改善



새해를 맞는昌慶苑의 노루

創刊辭

社長韓鼎大

한국新聞은 좋은  
市民을 낳고 좋은市民은  
좋은新聞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新聞뿐만 아니라 모든 「매스·  
미디어」가 社會에 미치는 影響과 比重을 表現한 말인데 이번 우리 社에  
도 半月刊이나마 社報를 강제되었으  
니 社發展을 為해 크게 廉價로운 일  
이라 하겠다. 健全한 社論을 反映하

는 좋은 社報는 좋은 社員을 낳게 하  
며 좋은 社員은 善한 事務에 精進하는  
社員을 意味하는 것이다. 어찌 慎義  
은 社論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此報發刊의 緒因 出發을 爭機하여  
社員 同僚間의 理解의 增進과 情誼에  
남자는 相互의 人間의 友誼으로 平素  
의 亂雜을 檢討 改善하는 組織으로  
서 또한 各部署間의 有機的 連帶를  
鞏固하 하며 나아가서는 社員 各者の  
實的인 權實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製品에 對한 研究 檢討 制訂의  
를 그리고 俱的 있는 春風秋月 這  
開闢 등으로 창원 社의 正論을 보여  
는 거울이 되는 것과 漢附호서 같다.  
社報 「노루」는 우리의 商標 「노  
루」와 더부러 社員 이라부화 했으  
니 또한 社의 승기포옹 象徵으로  
자라나는 날 社와 더불어 社員 어  
분이 또한 각자 날것임을 알게 된  
며 그 前途에 길이 繁榮이 있기를  
어마지 않는다.

— 1 —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65

1963-1972



한회장은 1953년에 이어 1963년에  
歐美的 잉크·도료 관련업체들을 방문했다.  
'세계 속의 기업'이 한회장의 변함없는  
목표였다.

1.런던에서  
2. AMERICAN INK MAKER 잡지사  
사장과 함께(1963. 2)

을지로직매소 한 창구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도장공 등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창구를 서울 전지역에  
확산시키기로 하고, 1963년 5월 6일  
청량리, 돈암동, 신당동, 서대문, 용산,  
노량진, 영등포직매소를 일제히 개설했다.



1



2

1.서대문직매소  
2.돈암동직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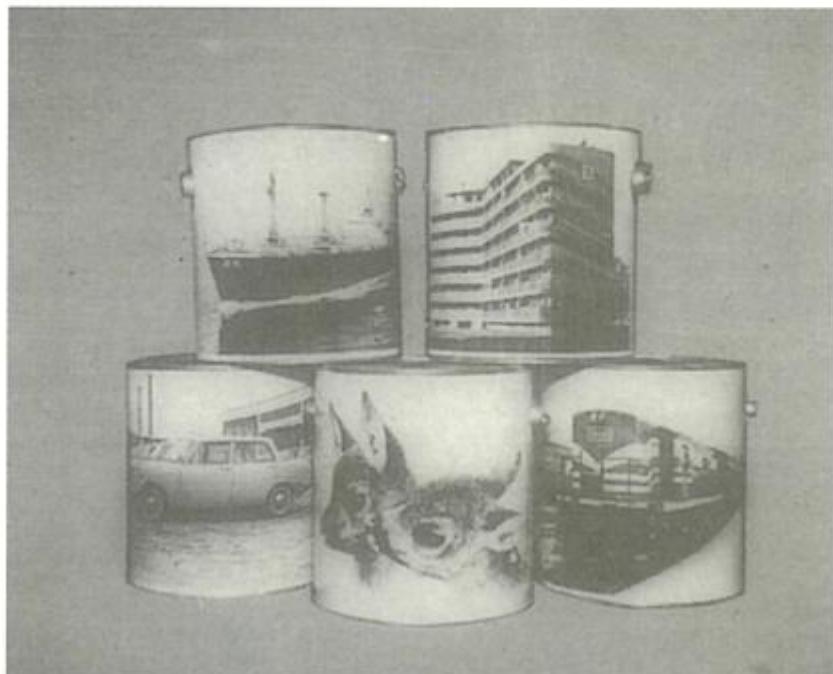


### 마포아파트(1963)

마포아파트는 국내 최초의 고층 아파트였다. 이곳을 '노루촌'으로 도장한 것을 인연으로 大韓住宅公社가 짓는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에 노루표 도료가 사용되었다. 이는 노루표 도료가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잉크제조주식회사’ 시절 제품들  
1963년 1월 20일, ‘대한잉크製造株式會社’는 상호를  
‘대한잉크·페인트製造株式會社’로 변경했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69

1963-1972



TV-CF(1964 KBS)

1963년 10월 1일부터 동아방송의 소설 낭독 프로그램인  
'玉樓夢'과 KBS-TV의 '추억의 노래'에 전략상품인 '노루튼'을  
광고했다. 업계에서 전파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처음이었다.

聖誕祝新





2



3



4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71

1963-1972

1. 성탄 축하 인사를 하는 한정대 회장 (1963. 12. 24)
2. 즐거운 만찬
3. 초청가수(나애심)
4. 초청가수(박재란)



1962년 6월에 설립된 한국물품군납조합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한정대 회장은, 을지로사옥 4층 홀을 제공하여  
'군납품질향상강좌'를 개최하는 등 군납업계의 개혁을 주도했다.

1

2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73

1963-1972



3

1. 문래동공장을 방문한 미군들에게 내후성 측진 시험기(Weather-O-Meter)를 설명하는 한정대 회장
2. 미군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정대 당시 한국물품군남조합 이사장
3. 을지로 사옥 4층에서 개최한 군남강습회 (1965.1) — 가운데가 한정대 회장



1



### 1. 최초의 국산 삼륜자동차 K-360

정부가 1962년 5월에 '자동차공업보호법'을 공포하고 외국산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을 억제하자, 기아산업(현재 기아자동차)이 발빠르게 삼륜자동차(K-360)를 생산했다. 기아산업에 침지용 자전거 소부도료를 납품하고 있던 대한잉크·페인트가 여기에 소요되는 자동차용 도료를 개발 납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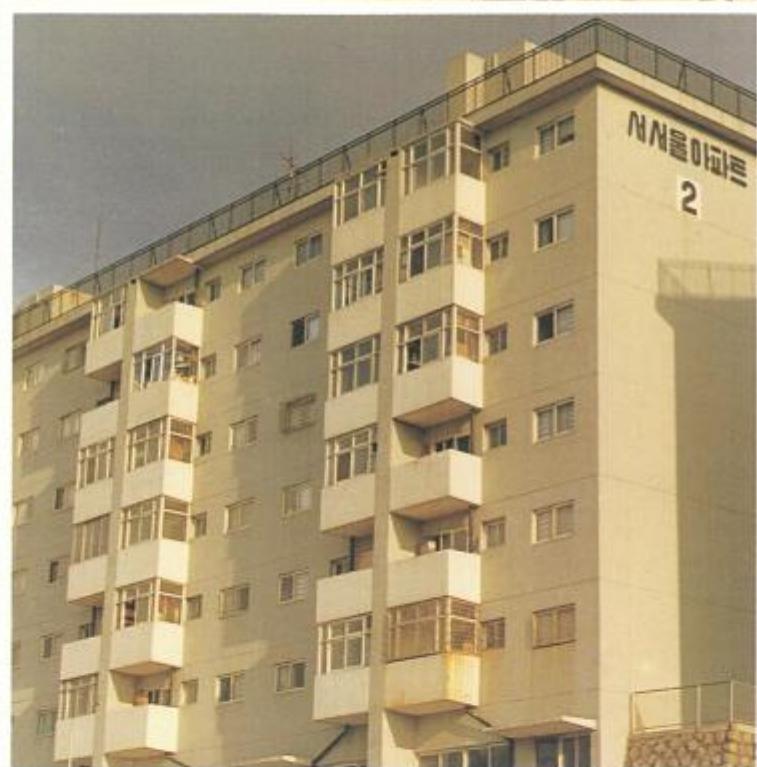


3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75

1963-1972



4

## 2. 한강맨션아파트

3. 새마을아파트(1970)

4. 서서울아파트(1970)

1965년 8월 31일, 발명특허를 획득한 수성도료 '노루솔'은 월등한 방수효과로 건축용 도료 시장을 휩쓸었다. 노루솔로 도장한 아파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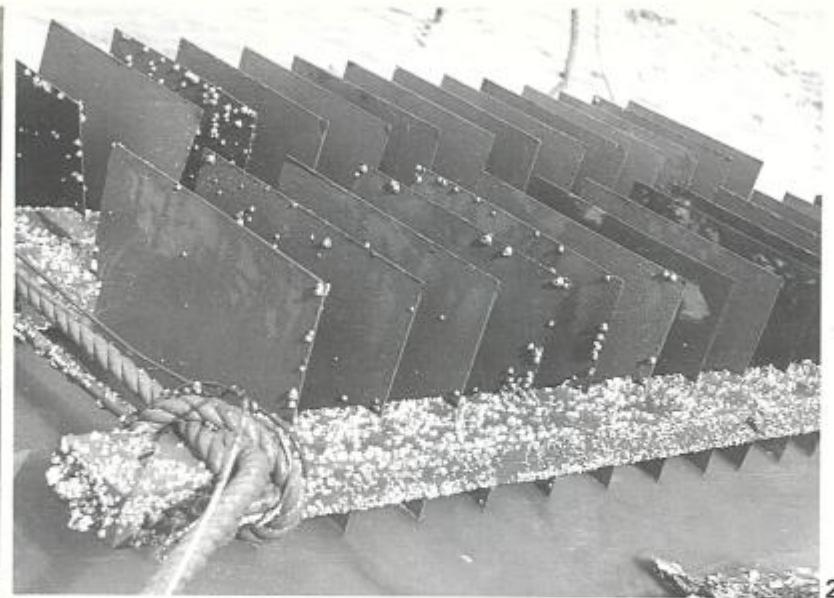
FR44

905  
SIDE

ROK

USA





2



3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77

1963-1972

5·16 후 미국이 한국 해군에 지원해  
오던 미제 선박용 도료의 원조를 중단하자,  
大韓잉크·페인트는 해군을 설득하여  
미제 선박용 도료와 '마린코트'  
(防汚船底 도료)를 비교시험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防汚 등 마린코트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해군에 선박용 도료를  
공급할 수 있었다. 해군에 이어  
大韓海運公社, 造船公社 등에도  
'마린코트'를 납품했다.  
'마린코트'는 1965년 7월 1일 발명특허를  
획득했다.

1. 미국산 선저도료로 도장한 부위(USA)와  
노루표 방오선저도료로 도장한 부위(ROK)
2. 바닷물 속에 넣어 둔 試片
3. '마린코트'의 TV 광고



1. 2. 미국에서 도입한 합성수지 기계 가동식 (1966. 6. 4)



3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79

1963-1972



4

### 3.울산공업단지

1962년 2월 3일 울산공업단지가 착공되자, 대한잉크·페인트는 미연방규격 도료를 생산한 실적을 인정받아 한국비료, 진해화학, 영남화학, 남해화학 등에 중방식용 도료를 대량 납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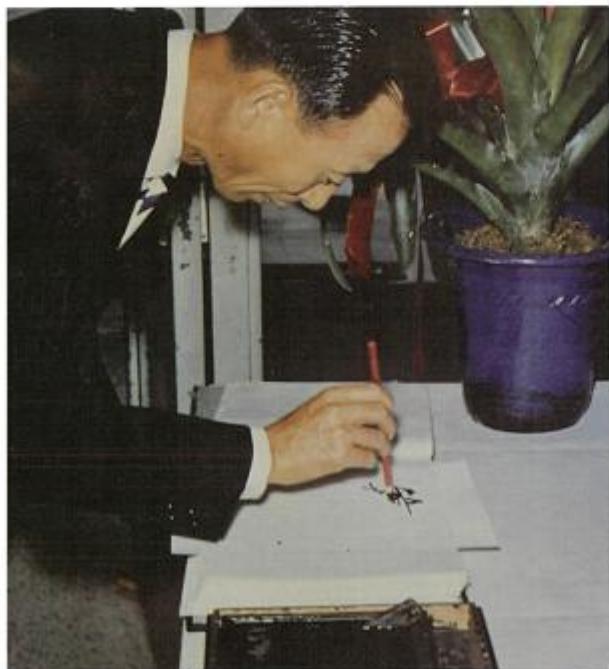
### 4.도로표지선 위에 세워놓은 차단막

(1968. 12)

1968년 12월, 준공을 20여 일 앞둔 경인고속도로를 서둘러 도장하라는 지시가 상공부에서 내려왔다. 영화 7도의 강추위가 계속되자 도장공을 구할 수 없어 직원들이 연손을 불어가며 도장했다.

창업20주년 기념사업으로 1965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문회관에서  
독자적으로 종합제품전시회를 열었다.

1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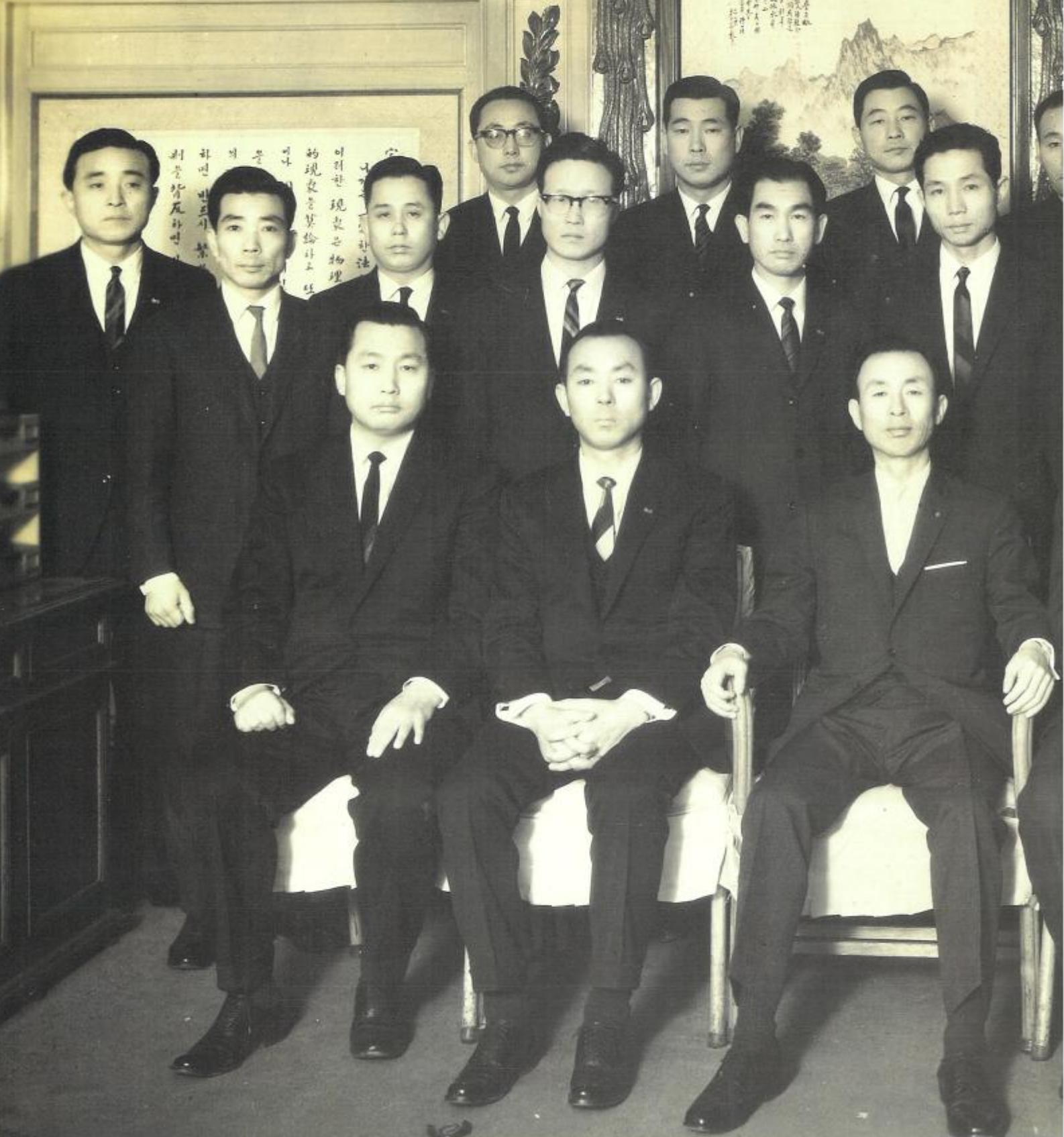
2



- 1.방명록에 서명하는 한회장(1965. 8. 22)
- 2.전시회 안내 입간판
- 4.관람객이 몰린 전시장



# 企業新草



# 清國 併各

清國  
併各  
西  
西  
西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83

1963-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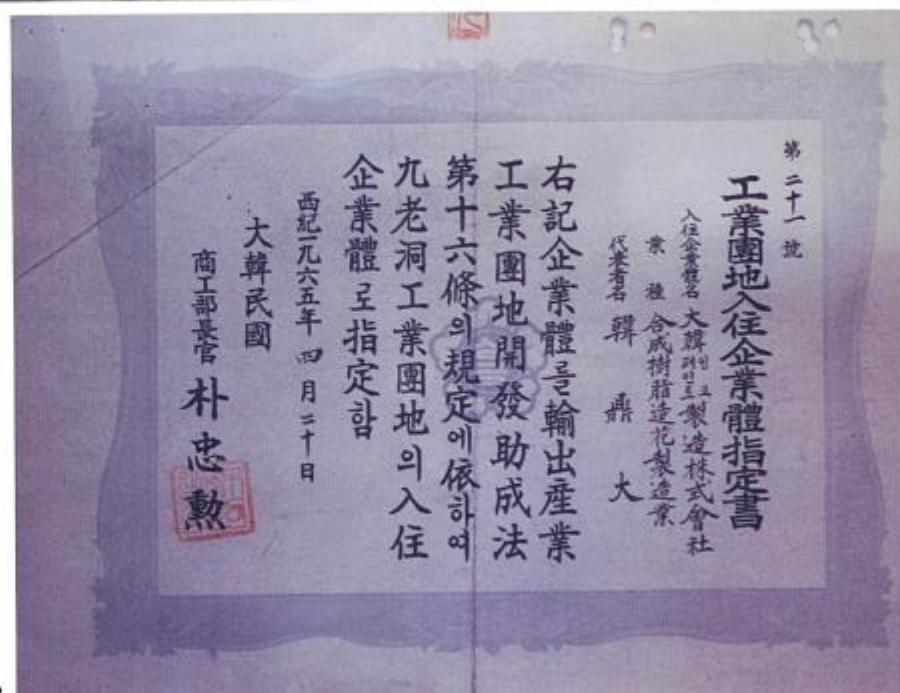
시무식 후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들(1966. 1. 4)

1966년은 대한잉크·페인트가 왕성하게 뿐어나갈 때였다.  
간부사원들의 얼굴에서 그러한 기상이 나타난다.



1

1966년 2월 홍콩을 방문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홍콩 만다라(Mandarin)  
호텔에서 프라스틱조화를 보고 국내에서도  
수출특화사업으로 육성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색채를  
다룬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당시 도료·  
잉크업체 중 대한잉크·페인트를 지정했다.



2

# 定 款

株式會社  
大韓造花工業社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85

1963-1972

1. 구로동 한국수출공단 3가구 2번지  
공장부지
2. 공단입주기업체 지정서(1965. 4. 20)
3. 대한조화공업사 定款



1

1967년 12월 18일, 구로공장 준공식에 육영수 여사 등 국내외 인사가 참석했고, 각 언론은 국내 최초의 프라스틱조화 수출공장의 탄생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후 구로공장은 외국 귀빈들의 단골 관광코스가 되었다.

2



1.준공식에 참석한 육영수 여사  
(1967. 12. 18)  
2.준공식장



3



4



5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87

1963-1972



6

3.김종필 당시 국무총리(1968. 1. 26)  
4.에치오피아 공주(1968. 5. 20)  
5.티우 월남 대통령 부인(1970. 8. 6)  
6.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의장 부인



대한조화는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에 프라스틱조화를 출품하여,  
대통령상, 우수상품상, 우수디자인상의 3개 부문을 수상했다.  
1969년 9월에는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뉴욕에 전시장을  
설치했다.



1



2



3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89  
1963-1972

1. 3개 부문 수상(1968. 9. 9)
2. 김포가도에 서 있던 수출광고탑(1968)
3. 뉴욕 조화전시장



울산공업단지 등 공업단지의 건설로 중방식 도료의 수요가 늘자, 대한잉크·페인트는 1966년 11월 日本페인트와 기술제휴하여 다음해 4월 에폭시수지 방청도료 제조기술을 받아들였다. 국내 도료업계 최초의 외국과의 기술제휴였다. 1971년 12월에는 대일본잉크화학공업주식회사(DIC)와 기술제휴하여 인쇄잉크 제조기술을 도입했다.

2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91

1963-1972



1. 기술제휴서에 사인하고 약수하는 한정대 회장과 일본페인트의 内田 康夫(1966. 11)  
2. DIC와 기술제휴(1971. 12)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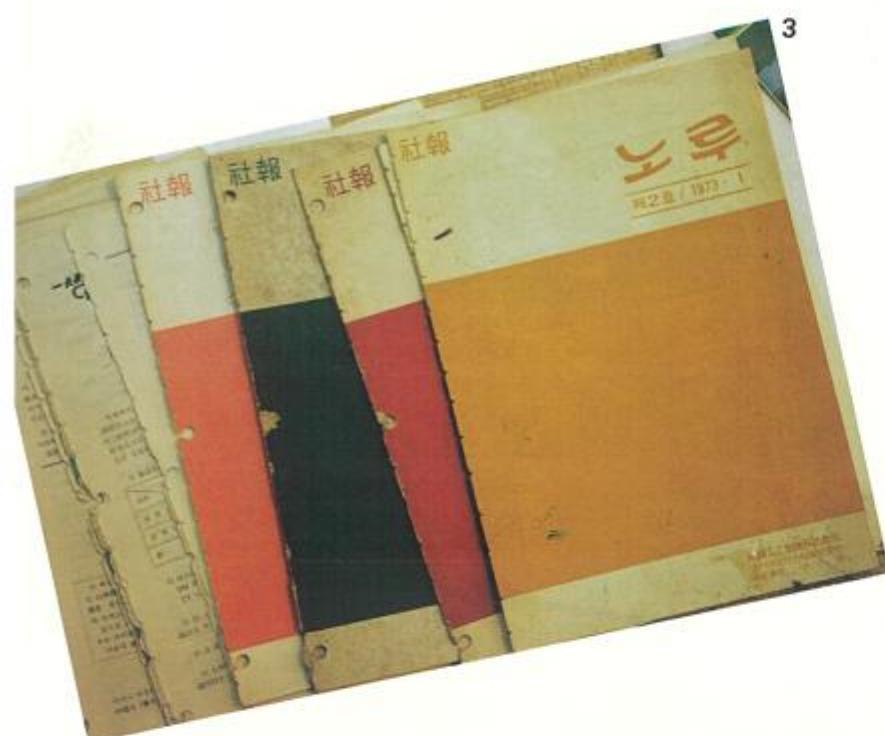
1

2

1. 문래동공장 안내 입간판(1972. 2)  
노루 모양이 '대한잉크제조주식회사' 시절에서  
약간 바뀌었다.

2. 60년대 대한잉크 시절 입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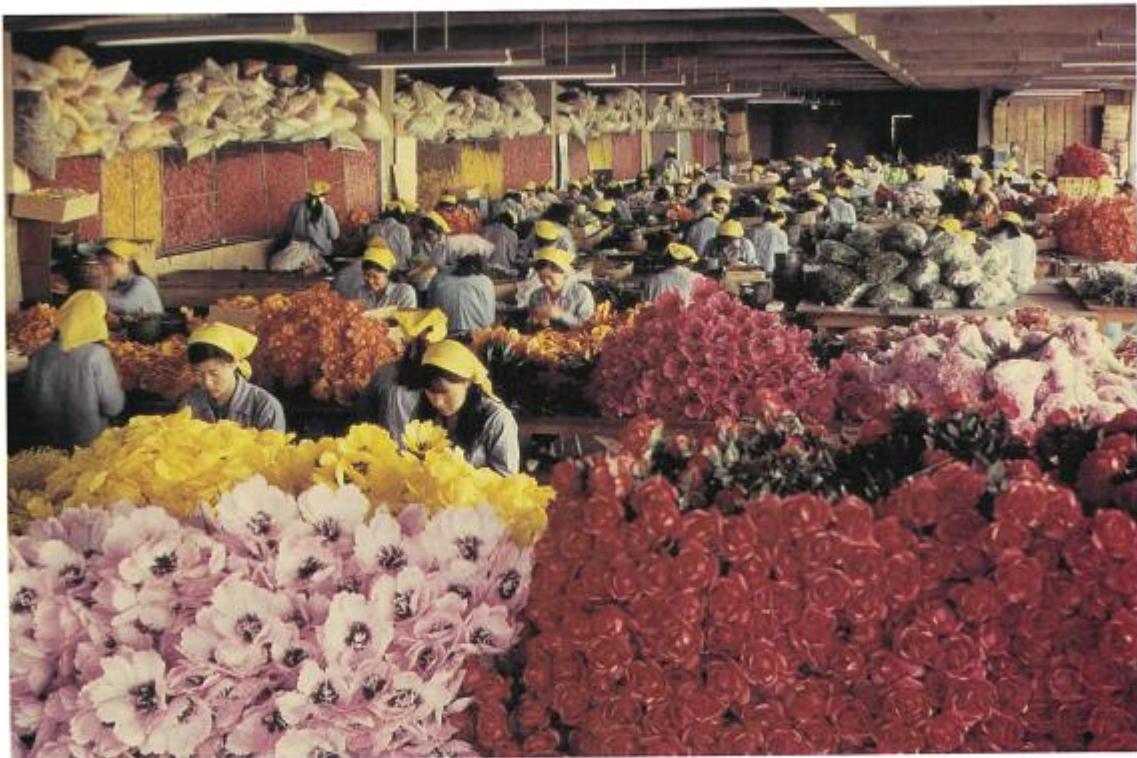
3. 70년대 발간된 사보를  
4. 문래동공장 정문 옆에 달려 있던  
'KS 표시품 생산공장'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93

1963-1972



1



2

대한조화는 정부의 독려를 받아가며 프라스틱조화를 급하게 생산했으나, 가동 직후부터 많은 문제점에 봉착했다. 특히 국내 프라스틱산업 구조가 취약해서 홍콩과 대만처럼 프라스틱업계와 계열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최대의 난제였다. 결국 수십 종의 조화(수백 종의 부품)를 대한조화 혼자 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설투자가 뒤따라야 했고,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홍콩 등에서 생산되는 프라스틱조화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적자 수출이 불가피했다. 국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각종 전시회에 조화를 출품했으나, 당시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의식주 이외의 것은 그저 눈요기 정도로 만족해야만 할 때였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95

1963-1972

3

1. 造花 조립라인

2. 콘테이너에 하객하는 수출제품

3. 전시회에 출품한 조화를 구경하는 관람객

(1971. 12)



기술과 판매망을 미처 확보하지 않고 서둘러 조화를 생산한 것은 실수였다. 조화공장의 시설과 인력을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물색한 끝에 프라스틱인형과 프라스틱완구제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970년 9월, 일본 협화화학과 협작하여 株式會社 大協을 설립했다.

1



2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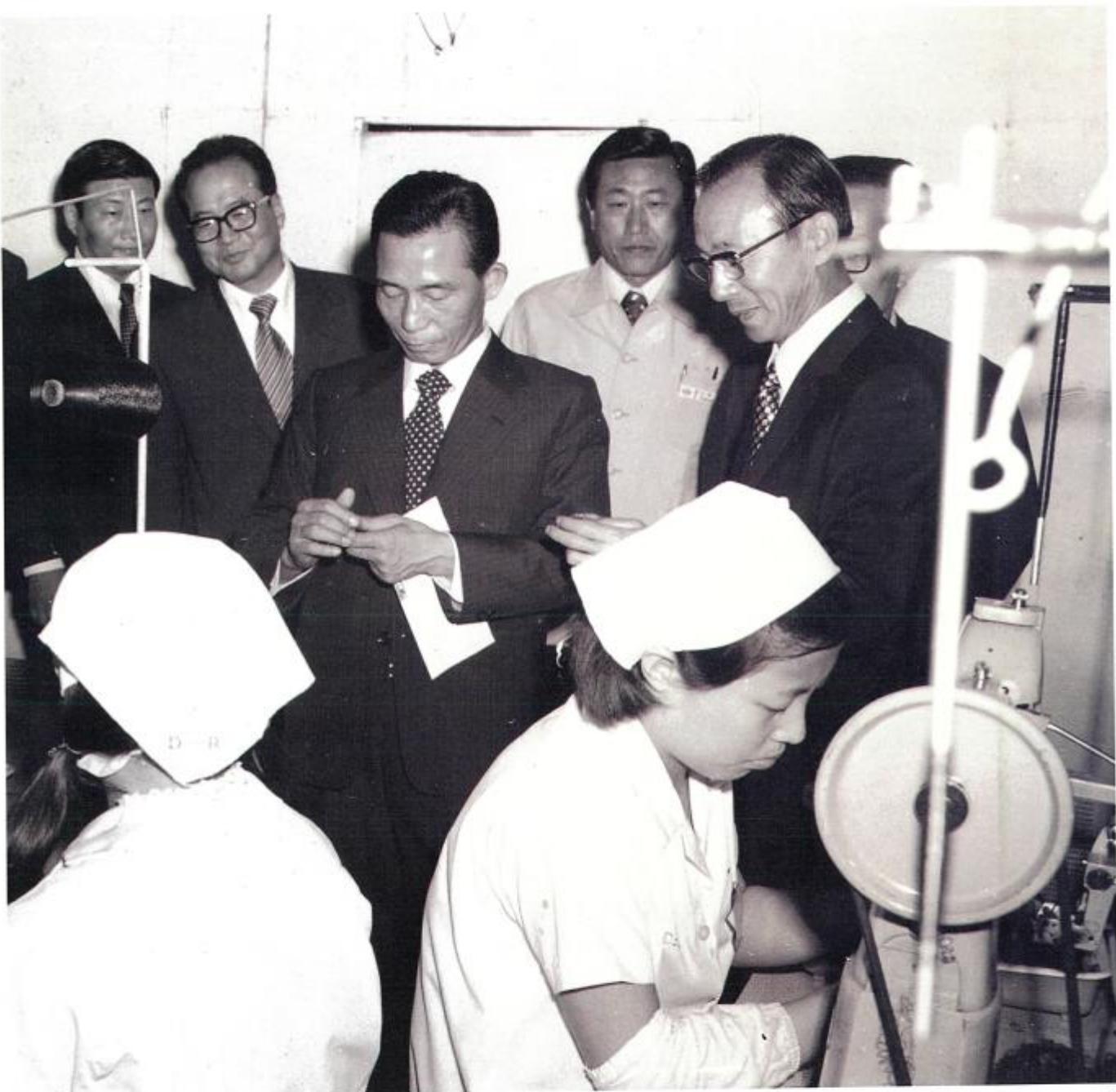
97

1963-1972



3

1. 대형의 인형복각 포장라인
2. 뽈빠이저금통 조립라인
3. 사무실 전경(1972. 5)



1

대협에 대한 투자는 성공이었다. 1972년에 인형, 완구 단일 종목으로 국내 1위의 수출실적을 올린 대협은 그 여세를 몰고 나갔다.



2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99

1963-1972



3

1. 구로공장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1973. 6. 5)

2. 대협 창립 1주년 기념-총수출실적

230만불 돌파

3. 구로공장 3층으로 증축(1972. 11)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01

1963-1972

김종필 국무총리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있는 한희장(1974. 11. 30)

대협의 수출실적으로, 1972년에 대통령 표창, 1973년에 산업포장을  
수상한 한희장은 1974년에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1973-

1988

# 결단과 발전

기업은 결단으로 발전한다.  
잉크와 도료를 통털어 동업계에서 가장 먼저,  
여느 기업들이 다 주저하고 있을 때  
기업을 공개한 결단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또 한번 앞서 나갔다.  
그 뒤를 안양공장의 생산력이 밟쳐 주었다.

## 1973

- 수성단보루 잉크 'Cordip' 와 웹셋운전잉크 'Web-Color' 생산(2月)
- 朴正熙 대통령, 구로공장 방문(6月 5日)
- 주식 상장(8月 10日)
- 대협, 산업포장 수상(11月 30日)
- 포항종합제철 준공(7月 3日)
- 호남·남해고속도로 개통

## 1974

- 노사협의운영위원회 설치(11月 21日)
- 한정대 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11月 30日)
- 지하철 1호선 개통(8月 15日)

## 1975

- 종업원 제안제도 실시(1月 1日)
- 우리사주조합 결성(1月 15日)
- 안양공장 착공(安養市 博達洞 615)(5月 24日)
- 대구연락사무소 설치(6月 20日)

## 1976

- 방화도료 '노부렉스' 발명특허(2月 14日)
- 안양공장 준공(4月 1日)
- 음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발명특허(8月 10日)
- 가정용 도료 시판(9月)
- 사우디아라비아에 도료 수출(10月 3日)
- 대협, 수출공로상(대통령 표창) 수상(11月 30日)

## 1977

- 수동식 무늬도장구 실용신안 등록(3月)
- 제1회 품질관리 분임조 사내발표회 개최(4月 21日)
- 의료보험조합 설립(6月 20日)
- 대협, 기업공개(6月 25日)
- 대협, 수출공로상(대통령 표창) 수상(11月 30日)
- 코리아 프라스틱, (株)世多로 상호변경(12月)
- 韓一銀行으로부터 30년간 거래 감사패 수상(12月 16日)

- 英國 인터내셔널페인트社로부터 분체도료용 수지제조 기술도입(4月 26日)
- 英國 인터내셔널페인트社로부터 PCM도료 기술도입(5月 7日)
- SAVE '86 전개(6月 1日)
- 순천연락사무소 개설(順天市 매곡동 437-6)(7月)
- 국내 최초로 H종 합침용 절연 바니쉬(DVB 2152 H종) UL인증 획득(9月 10日)
- 홍콩에 낚싯대용 도료 수출(10月)
- 메이플공장 준공(11月 1日)
- 올림픽대로 준공(5月 2日)

## 1987

- 소비자상담실 신설(2月 23日)
- 노동조합 설립(8月 22日)
- 蔚山사무소 개설(울산시 남구 달동 615-6)(9月 1日)
- 原州사무소 개설(9月 1日)(원주시 학성2동 207-27(9月 1日))
- 西獨 바스프社로부터 악기산업용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도료 및 수지제조 기술도입(10月 14日)
- 사풍일신 캠페인 선언(11月 25日)
- 중부고속도로 개통(11月 3日)

## 1988

- 美國릴라이언스 유니버설社로부터 목공·프라스틱·금속·방청용 도료 및 수지 기술도입(1月)
- 구로공장, 금형가공기술 품질관리 1등급업체 지정(7月)
- 방청페인트·수성페인트 등 7개군 22개 품목 Q마크 획득(7月)
- 제품창고 무인자동화 설비완공(7月)
- 제1회 역할 연기(Role Playing) 실시(9月 16日)
- 네덜란드 악조社와 항공기용 도료 주요제품의 수입판매권 및 부수제품의 제조기술 도입(10月 14日)
- 제1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10月 22日)
- 기술연구소, 병역특례기관 지정(10月 26日)
- 韓榮宰 사장 취임(12月 1日)
- 서울 올림픽대회 개최

대한잉크·페인트는 1973년 6월 29일  
동업계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공개했다.  
당시 대다수 기업들이 개인재산의  
사회 환원을 의미하는 기업공개를  
꺼리는 때라 망설임이 없지 않았으나,  
한정대 회장은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폭넓은 자금조달과 기업규모  
확장 등 적극적인 경영정책을 택했다.



上場 안내서

## 1978

- B-80 컴퓨터 도입(3月 6日)
- 난연성 도료 '화스탄' 발명특허(5月 22日)
- 발수성 광택에멀젼도료 '광택스', 수성다채도료 발명특허(7月 1日)
- 日本도시바케미칼(株)로부터 絶緣바니쉬 기술도입(7月 18日)
- 프라스틱사업부, 미국UL안전규격 획득, UL인정 성형공장으로 등록(8月)
- 麗川석유화학공단 준공(5月 26日)

## 1979

- 日本페인트로부터 공업용 도료 기술도입(2月 12日)
- 프라스틱사업부, 자동차부품 생산(3月)
- 전산추진위원회 구성(6月 12日)
- 동해 고속도로 개통(1月 31日)
- 박정희 대통령 서거(10月 26日)

## 1980

- 한정대 사장, 회장 취임(2月 27日)
- 부산출장소 사옥 완공(釜山市 東來區 釜谷洞 244-3)(3月 31日)
- 대협, 영업활동 정지신고(7月 30日)
- 英國 인터내셔널페인트로부터 선박용 및 중방식용 도료 제조기술 도입(9月 18日)
- 大韓인터내셔널페인트(株) 설립(10월 21日)
- 광주사태 발생(5月 18日)

## 1981

- 제안제도 실시(4月 13日)

## 1982

- 프라스틱사업부, 금형공장 증축(10月)
- 大韓인터내셔널페인트, 철탑산업훈장 수상(11月 30日)
- 大日本잉크와 그라비아잉크 제조기술 제휴(12月 1日)

## 1983

- 리비아 주택성으로부터 건축용도료 전반에 걸쳐 BS 규격에 준하는 품질 승인 획득(3月)

##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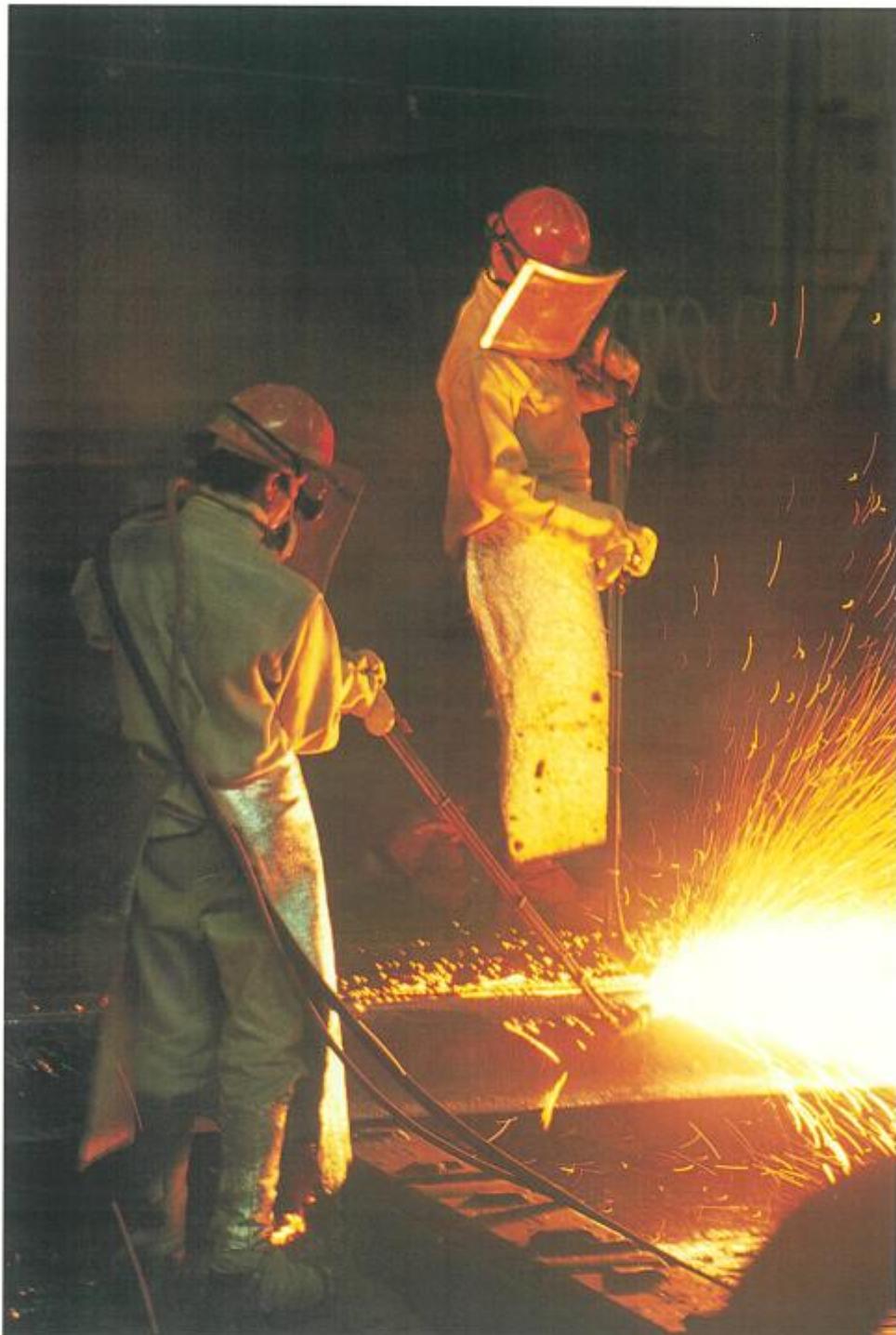
- IBM 4331 시스템 도입(1月)
- 리비아에 도료 수출(2月 10日)
- 導電性도료 UL인가(5月 3日)
- 濠洲 베이퍼규어인터내셔널社로부터 속건성 도료 기술도입(5月 22日)
- 大韓인터내셔널페인트, 英國인터내셔널페인트로부터 분체도료 기술도입(9月 8日)
- '84 전국 공장 새마을 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에서 공업표준화상 수상(11月 9日)
- 수도관용 無溶劑 에폭시, 日本식품협회의 JWWA인가(11月 9日)
- 여의도영업사무소 개설(汝矣島洞 17-3), (12月 1日)
- 지하철 2호선 개통(5月 22日)
- 올림픽고속도로 개통(6月 27日)

## 1985

- 美國 릴라이언스 유니버설社로부터 도료제조 기술도입(4月 20日)
- 분체도료 생산공장 준공(5月 8日)
- 사외보 '노루표 페인트 뉴스' 创刊(6月)
- 제1회 특약점 대표자 간담회 개최(6月 24日~6月 26日)
- MISSION '85 전력화 교육훈련 실시(7月 26日~8月 28日)
- 日本페인트와 협찬으로 색채 세미나 개최(9月 18日)

## 1986

- 日本 다이쿄社(DAIKYO CO. Ltd)로부터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기술도입(1月 15日)
- 기업부설연구소 인가(2月 3日)
- 플라스틱사업부, 금형설계용 CAD System도입(2月)
- 강원연락사무소 개설(江陵市 옥천동 156-1)(3月 3日)
- 美國 밸스파社로부터 실내칸막이 및 가구용 도료 기술도입(3月 8日)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09

1973-1988

1973년에 포항종합제철이 준공되자,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다. 이 자신감은 국가의 경제적 분위기를  
일신한 전기를 마련했다.

포항종합제철소(1973)

1973년의 오일파동 후에 원자재의 자체생산을 계획했으나 문래동공장의 수용능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다. 당시 공해산업의 외곽지역 이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었다. 1975년 5월에 문래동 공장, 구로공장에 이어 안양공장 건설에 착공했다.



#### 1.기공식(197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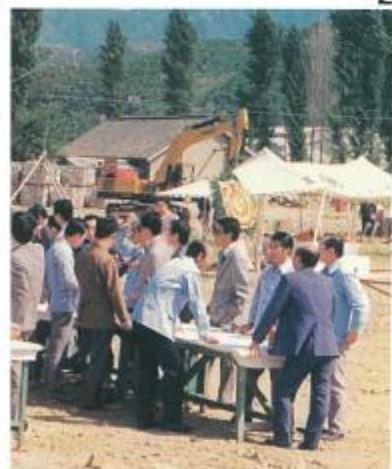
한정대 회장 옆은 시공을 맡은 삼환기업의 최종환 회장

#### 2.착공식(197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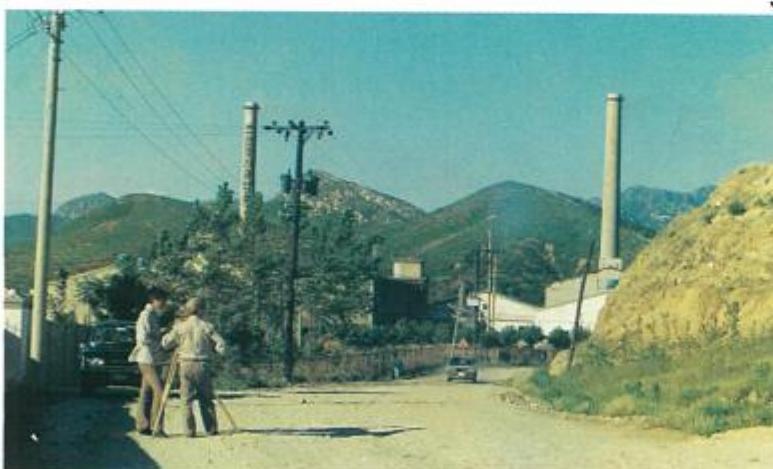
#### 3.측량(1974. 6)

#### 4.공장부지(1974. 7)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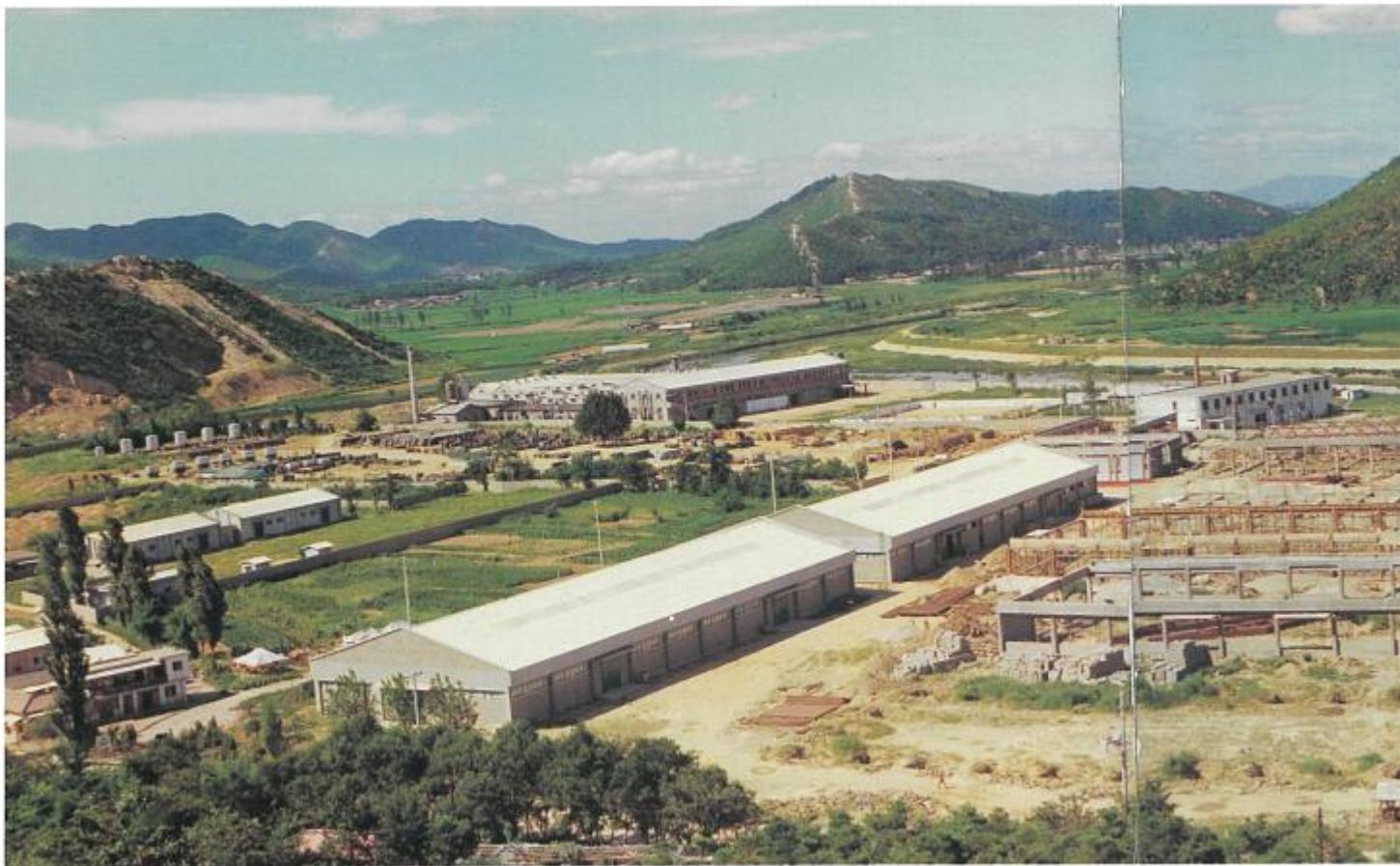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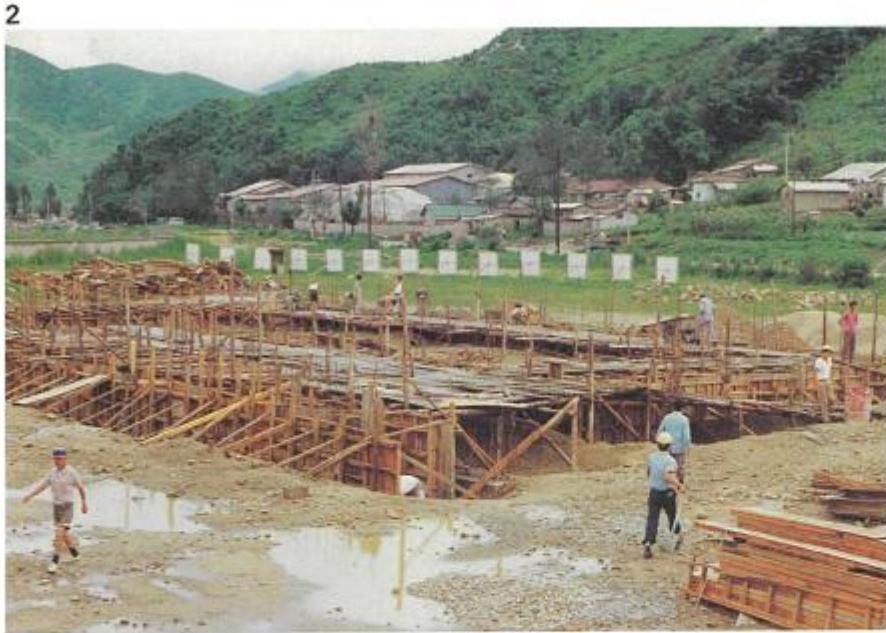
1973-1988

4





—112



1. 저수로를 세우기 前의 공사 현장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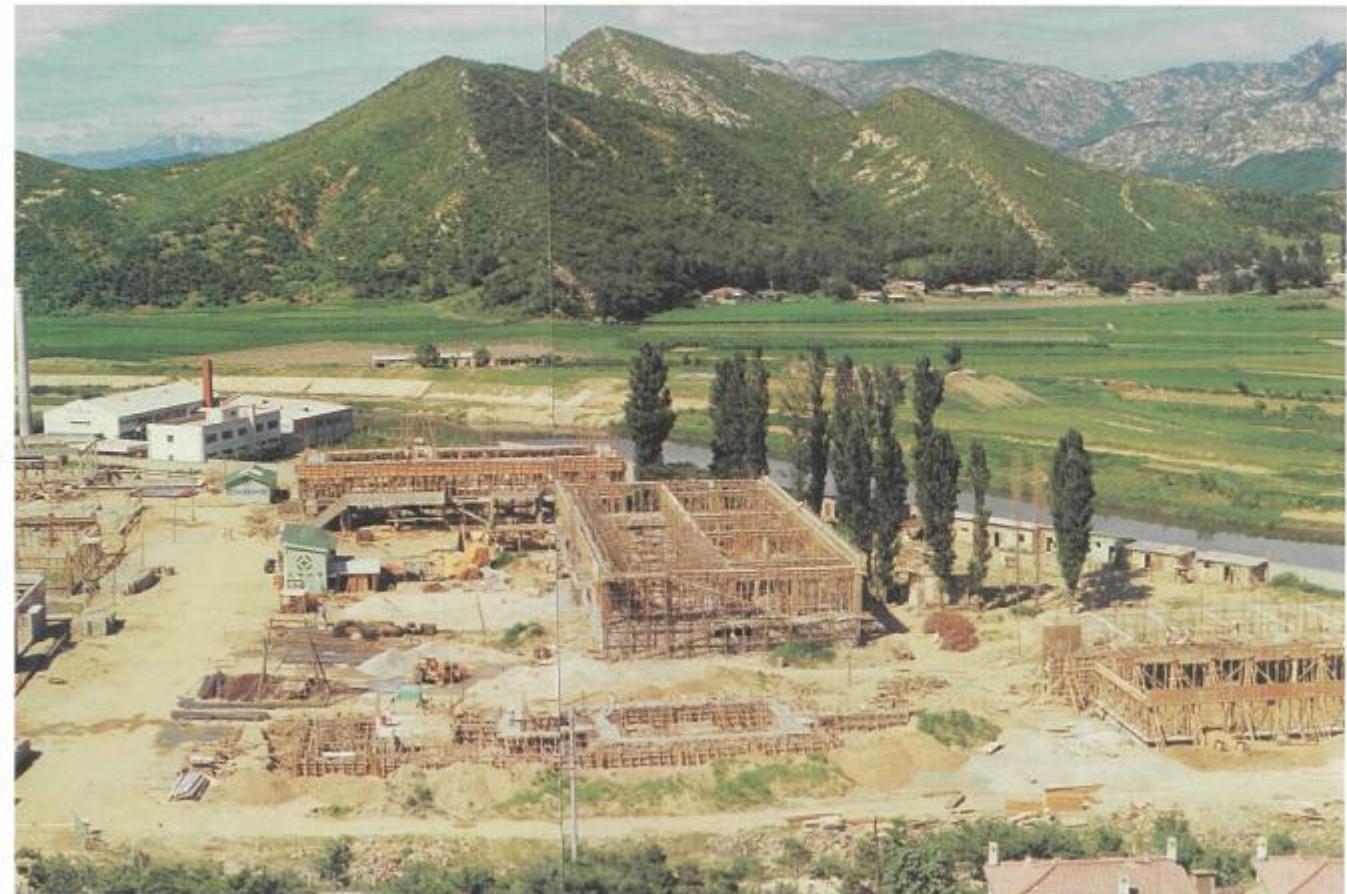
2. 본관 건물 기초작업

3. 마텔사의 M.Haines 부사장과 현장을  
둘러보는 한정대 회장(1975. 11)

4. 올라가고 있는 저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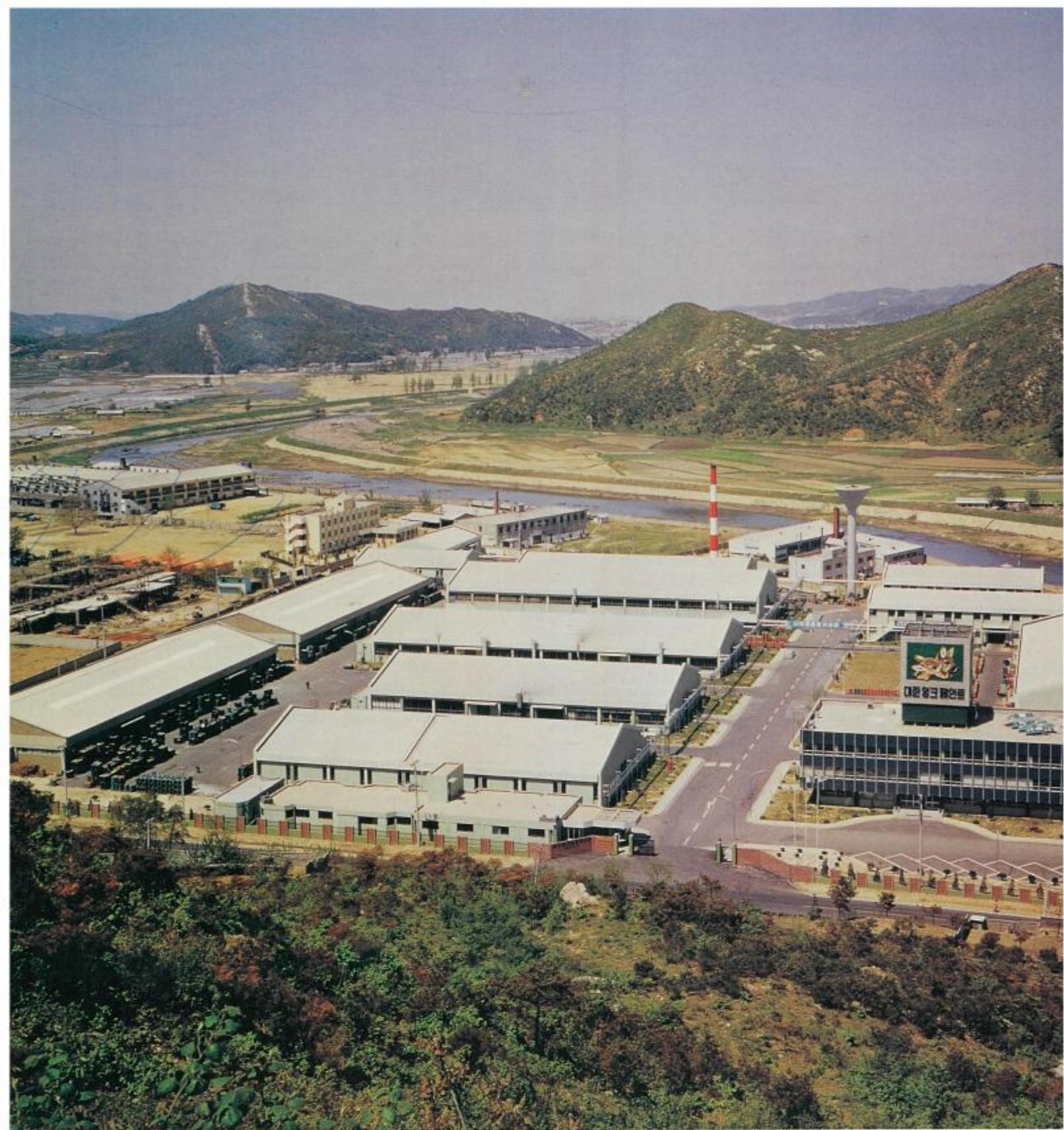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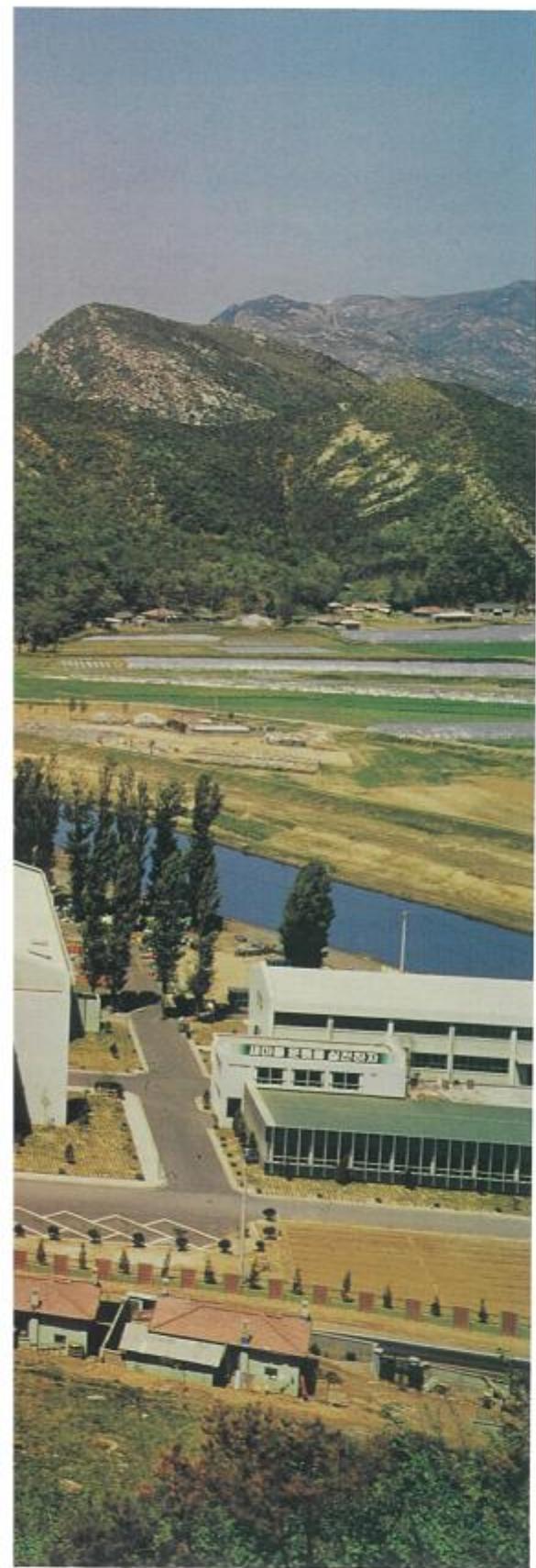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76년 4월 1일 준공된 안양공장은 8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높이 27m의 저수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120명이 머무를 수 있는 기숙사 등 모두 17동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생산공장은 건물 내의 기동을 없애 작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는 18m 이상 벌려 일사광선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화재시에 소방차의 이동이 수월하게 했다.

1



2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15

1973-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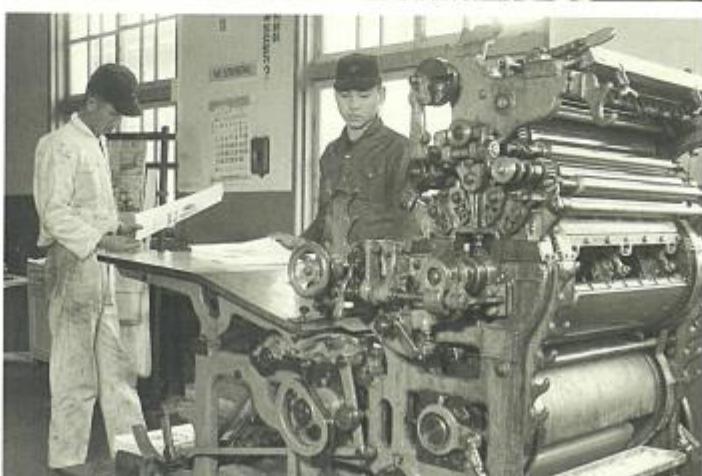
3

1. 안양공장 전경
2. 본관 앞 틀에 식목하고 있는 직원들
3. 기숙사





2



3

1976년 4월 1일 준공되기 전에 먼저 유지 1,2부가 이전해 오고, 준공 후에 문래동공장의 잉크·페인트 사업부가 모두 다 합류했다. 1977년 1월에 을지로본사도 판매부서만 남겨놓고 안양공장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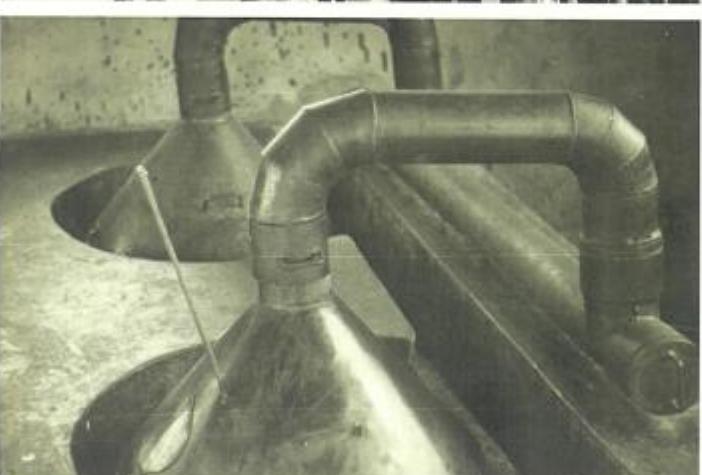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17

1973-1988



4



5

- 1.기술부
- 2.도료부
- 3.인쇄실
- 4.발전실
- 5.수지 Kett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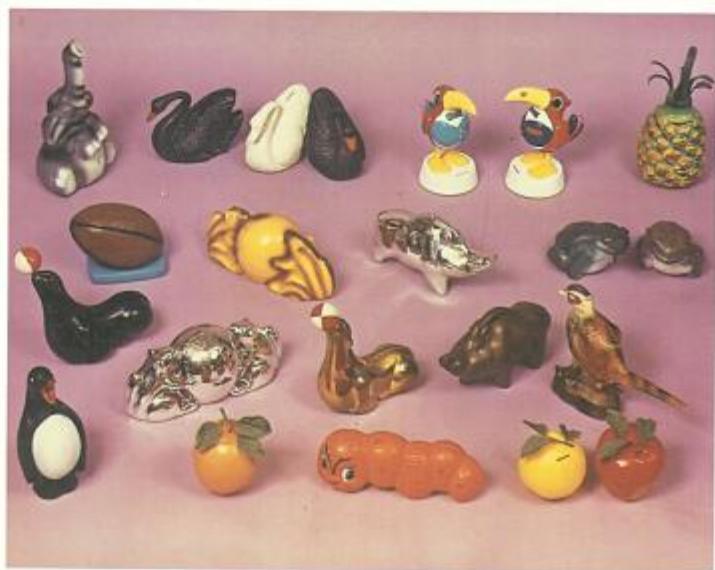


1

문래동공장은 잉크·페인트사업부가  
모두 이전한 후 대협이 인수했다.



2



3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19

1973-1988



4

- 1.문래동공장
- 2.봉제기계 300대 증설(1975. 12)
- 3.생산제품(저금통)
- 4.생산제품(마른인형)



—120

구로공장(프라스틱사업부)은 1975년  
5월에 일본 도시바로부터 대형 사출성형기를  
도입하여 생산제품의 대형화를 추진했다.

1. 구로공장
2. P.P Band, P.P FILM 등 생산제품
3. 프라스틱 생활용품
4. 프라스틱 전자제품



2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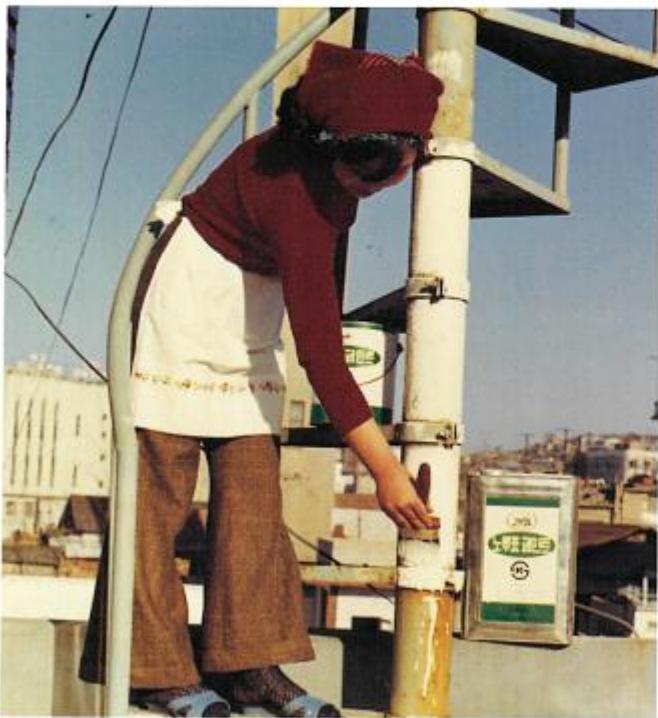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21

1973-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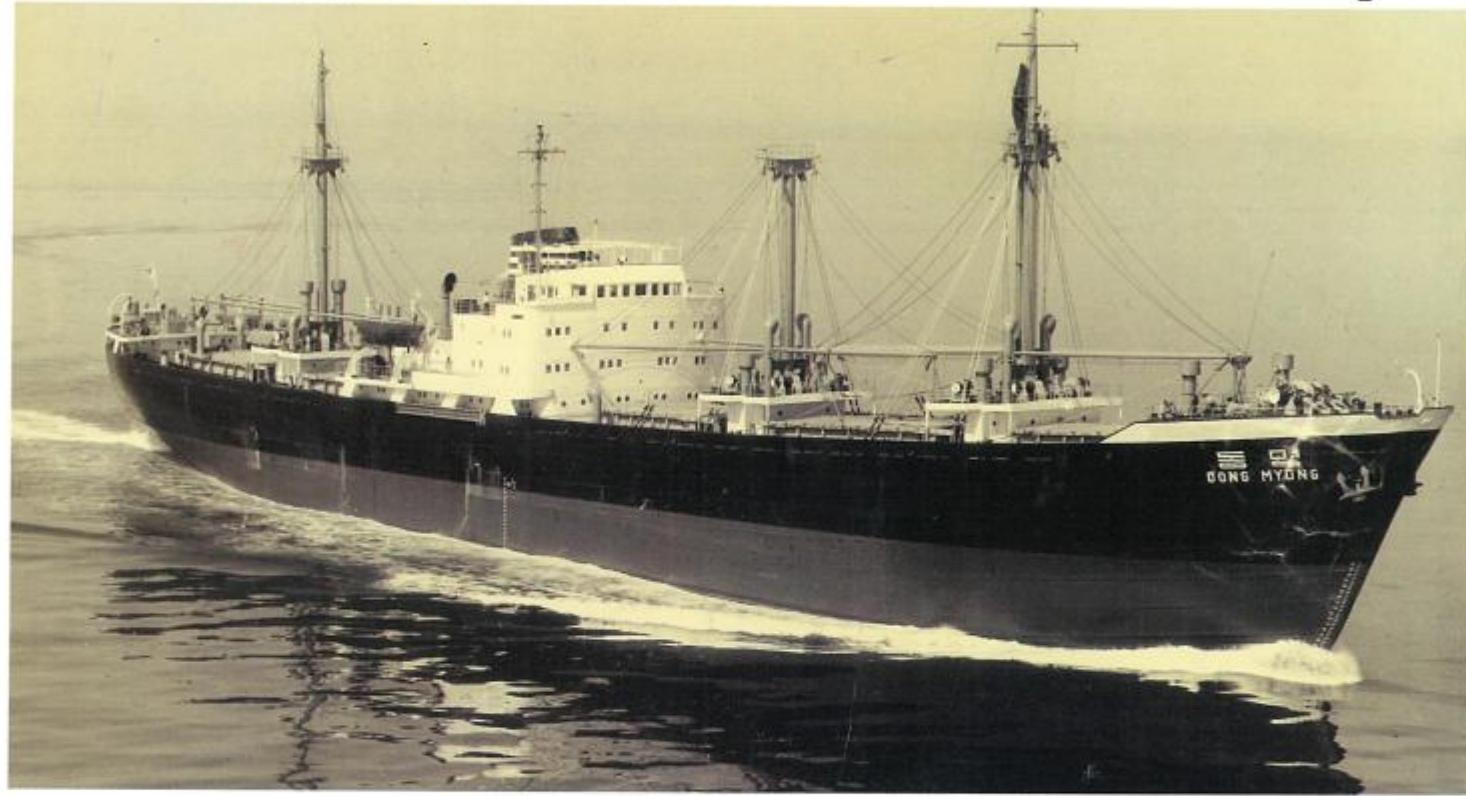
4



1

1976년의 새해 지표를 '기술개발의 해'로 설정하고 공업용 도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그해 9월부터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도료 (Home Paint)를 시판했다.

2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23

1973-1988



1. 가정용 도료(Home Paint) 광고
2. 선박
3. 전철
4. 자동차



1977년에 대한잉크·페인트는 처음으로 연간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25

1973-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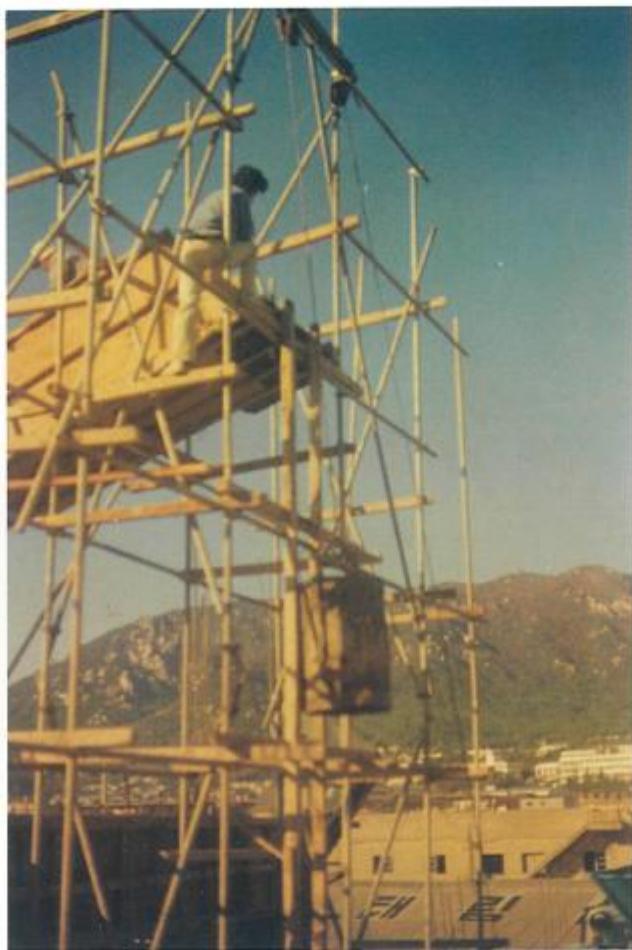
- 1.선적
- 2.포장
- 3.안양공장을 떠나는 수출 물량

70년대 국가적 수출진흥책에 동참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온 보람이 있어, 1976년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성도료와 에나멜 7,400가ロン (Galon)을 수출했다.



제34기 정기주총(1980. 2. 27)

1



1. 신축중인 부산사옥(1979. 11)  
2. 부산사옥 준공(1980. 3. 31)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27

1973-1988

2



'10·26사태'로 그 이튿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잉크·페인트는 제34기  
정기주총에서 한정대 사장을 회장에 선임하고, 부산사옥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4-3)을 준공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계속해 나갔다.

70년대에 국내 조선업계가 힘있게 성장하자,  
대한잉크·페인트는 영국의  
International Paint CO.(IPC)와 합작하여 선박용  
도료를 전문하는 대한인터내셔널페인트(IPK)를 설립했다.  
그 시기가 절묘해서, 1981년부터 세계 조선경기가  
급상승했다. IPK는 영업 초년인 1981년에 51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듬해에 102억여 원 매출증  
1,046만불을 수출했다. 그해에 1,000만불 수출탑과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철탑산업훈장(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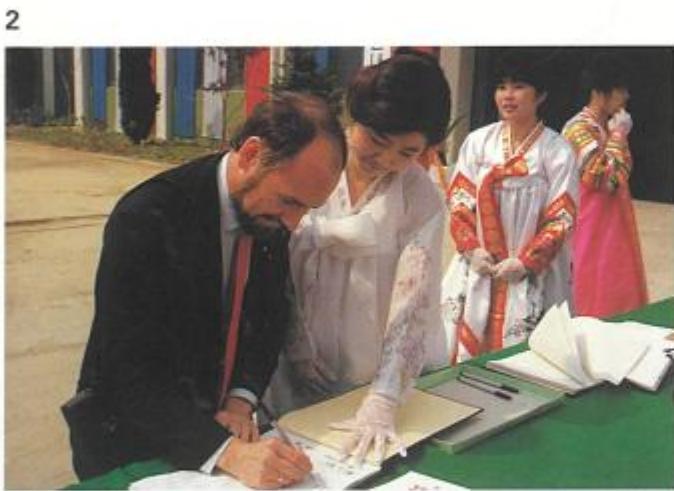


리비아 '7,000하우징' 앞의 제품 야적장(1985)

70년대 중동건설붐을 타고, 대한잉크 ·  
페인트도 1983년 11월부터 1985년까지 390만  
달러에 상당하는 도료를 리비아에 수출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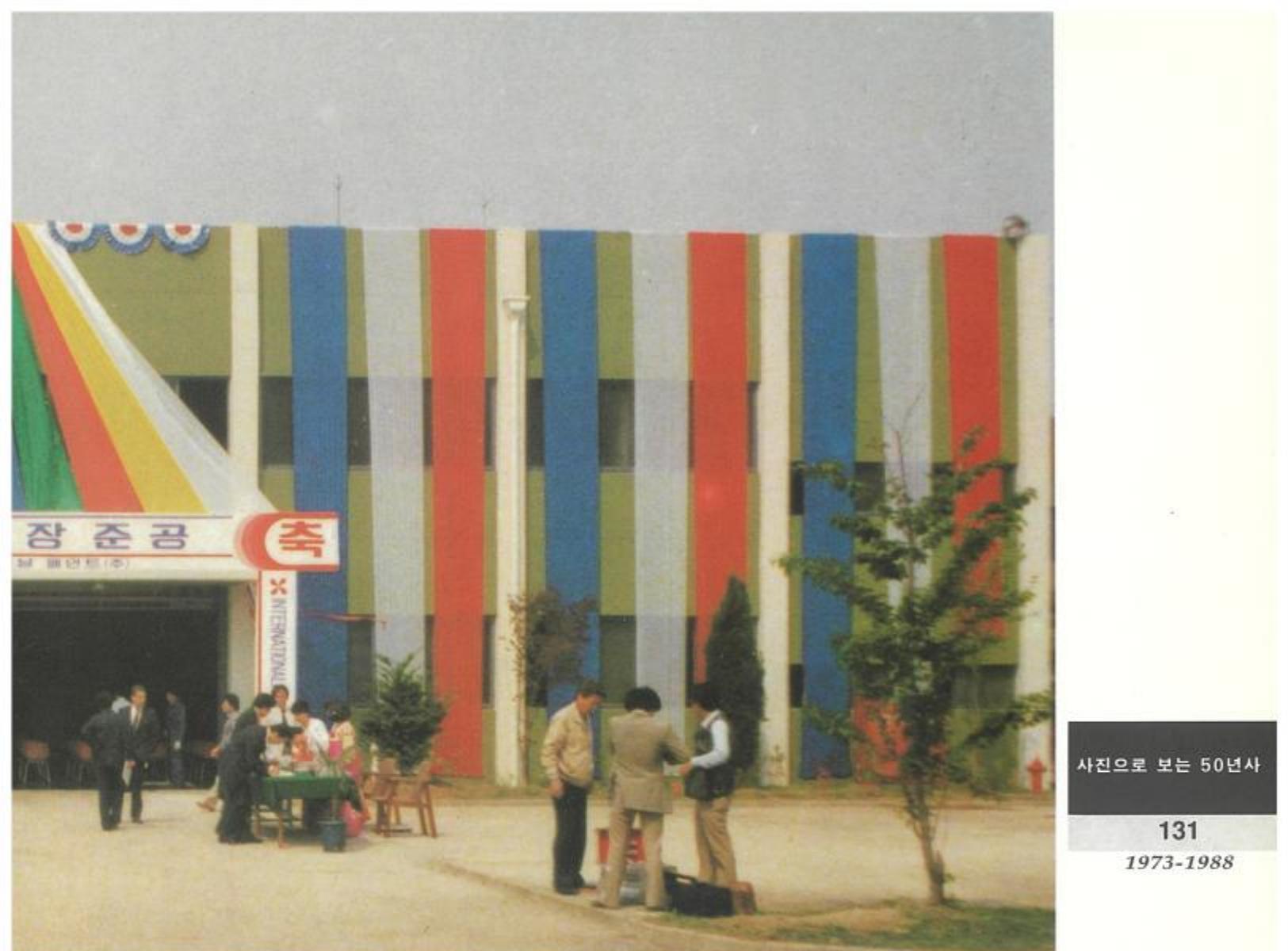


2



3

80년대 들어 공해 문제가 대두되자 국내외 선진업체들이 전자레인지, 건축 내외장재, 파이프 등에 분체도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IPK는 1985년 5월 9일, 내외자 60여 억원을 투자하여 분체도료공장을 준공했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31

1973-1988



1. 준공식(1985. 5. 8)
2. 방명록에 사인하는 외국인 방문객
3. 케이크를 자르는 한정대 회장
4. 기념식수



감사패 수여식 후 기념촬영  
(한정대 회장의 왼쪽이 薛洪烈 당시  
한일은행장, 오른쪽이 이규설 고문)

한회장은 창업 당시 담보도 없이 조선은행으로부터 50萬圓을  
융자받았다.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데 은행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한회장의 주장을 조선은행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후  
조선은행의 일반업무가 商工銀行으로 넘어와 한일은행에 이르기까지  
한회장은 한일은행과 거래를 계속해 왔다. 한일은행은 1986년  
7월에 41년간 장기거래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소재의 개발과 소비자의 수요 증대 등으로 도료제품의 종류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기존의 공용생산설비체제로는 안정된  
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대한잉크·페인트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각 제품의 생산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하고, 먼저 1986년 11월  
1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생산공정을 모두 자동화한 자동차용 도료 및<sup>1</sup>  
칼라강판도료 전문생산공장인 '메이플공장'을 준공했다.  
(1986. 11. 1)



### 1. '제1회 전국도장기능경진대회' (1987. 4. 26)



2. 안양공장을 방문한 도장인들(1987.11.14)



1

1. '社風一新' 추진대회(1987. 11. 25)
2. 부서별 역할연기대회(1988. 9. 16)
3. 심사위원석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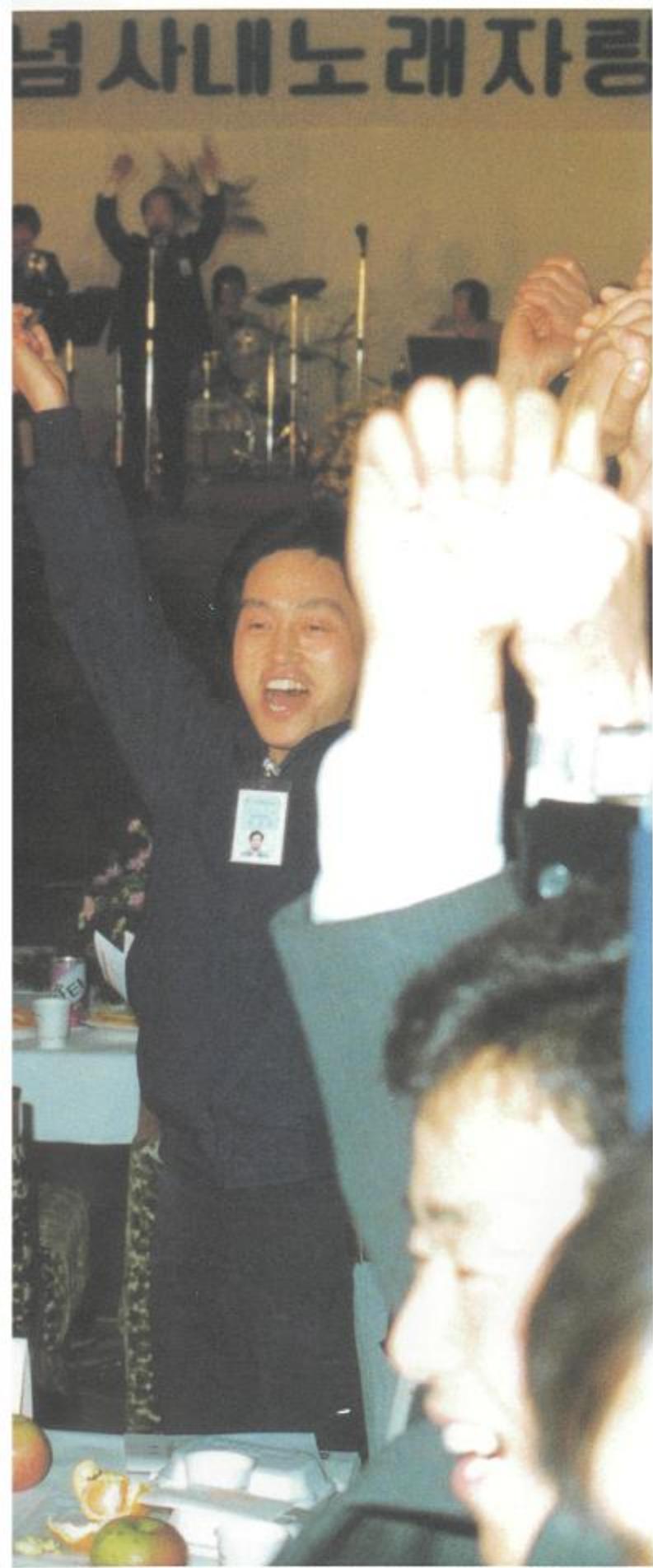
137

1973-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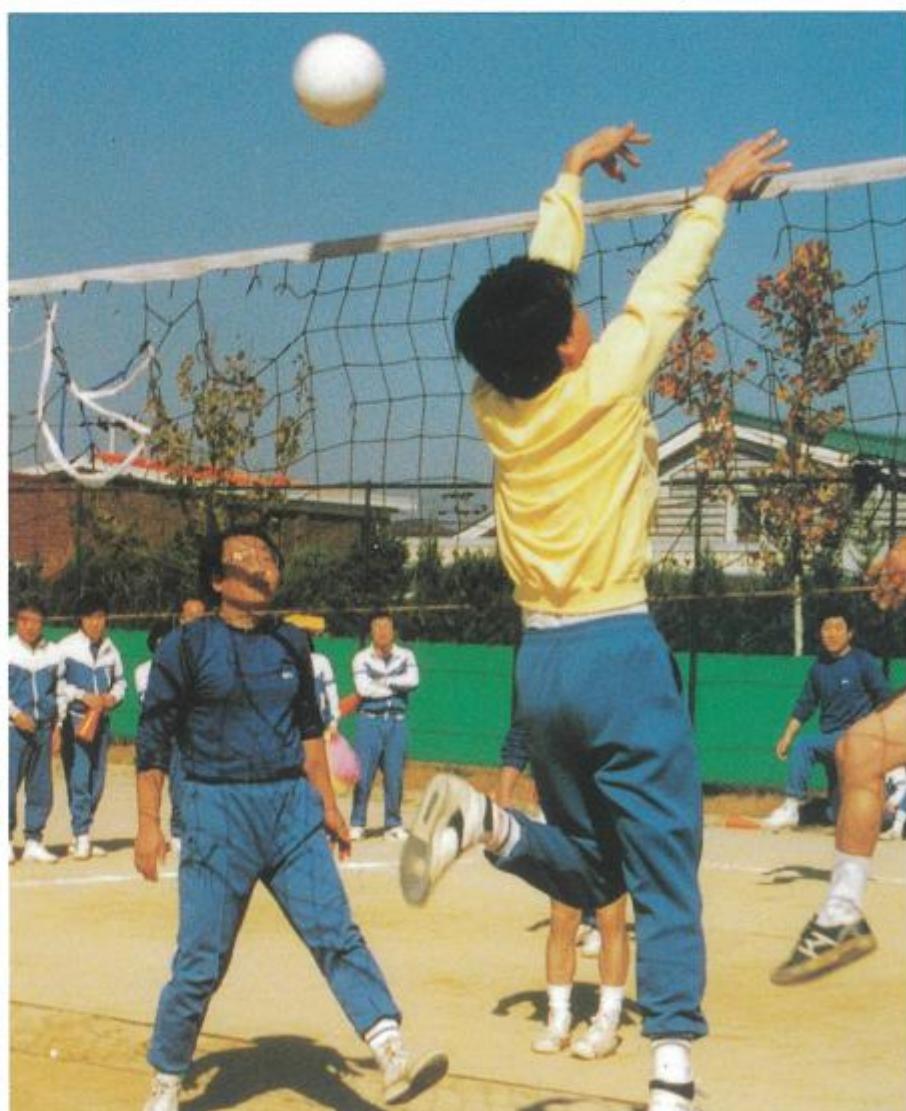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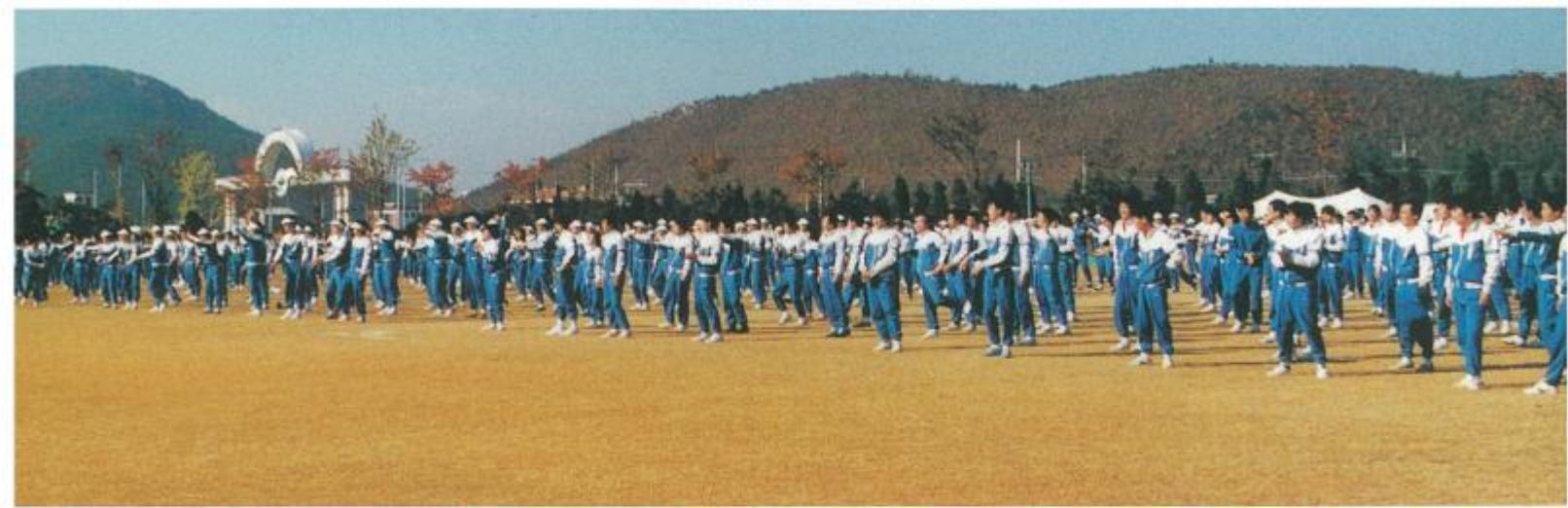
창업





'창업 41주년 기념 사내노래자랑' (1986.11)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그 해에 열린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는  
노루가족이 새롭게 화합한 마당이었다.(1988. 11)

1989-  
1995

# 제2의 도약을 위하여

대한페인트·잉크의 50년 역사를 떠받친 지주는  
‘保守 속의 改革’ 이었다. 보수는 기업의 정신적  
지주였지만, 급박하게 달라지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正道를 벗어나지  
않은 개혁으로, 매출액 1,000억원 돌파 ·  
‘종합생산성 대상’ 수상 · 중국 자금성 도료 수출 등  
도약의 2000년대를 위한 징검들을 하나씩 놓아 왔다.

## 1989

- (株)프라코 설립(2月 9日)
- 大韓페인트·잉크株式會社로 상호 변경(2月 28日)
- 광주분공장 준공(光州直轄市 북구 양산동 403-12)(3月 25日)
- 일본 대판 연락사무소 설치(3月 27日)
- 수지사업부 두령분임조, 한국제안활동 경진대회 최우수 제안그룹상 수상(4月 14日)
- 美國 셔원 월리암스社로부터 가전금속 및 자동차부품용 전착도료 기술도입(6月 9日)
- 원료창고 자동화 설비 완공(6月)
- 제9회 방송광고 大賞 TV생활용품부문 작품상 수상(12月 8日)
- 美國 밸스파社로부터 모터용 절연바니쉬 기술도입(12月 28日)

## 1990

- 아산연락사무소 개설(1月 15日)
- 판매결의대회 개최(2月 24日)
- 절연바니쉬 UL 인증 획득(3月 28日)
- 英國카틀즈코팅社로부터 분체도료용 솔리드 폴리에스테르수지 제조기술도입(5月 3日)
- 대한 비 케미칼 주식회사 설립(5月 18日)
- 大韓인터내셔널페인트, 컨테이너 및 선박용 도료 中國에 수출(7月)
- IPK, SECIALITY EFFECT POWDER 개발(9月)
- '안티포스터(점지방용 특수도료)' 개발(9月)
- 국내 최초로 무공해잉크 'WEB FRESH' 개발(9月)
- 창업45주년 기념행사 거행(국립극장 대극장)(11月 1日)
- 한국인의 표준색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국립극장 소극장)(11月 1日)
- 사료전시실 개관(11月 9日)
- 경영전략 정보 시스템 KIS-LINE 설치(11月 15日)
- 인쇄용 잉크 중앙공급장치 국내 공급(11月)
- 정부, 경제부흥 5개년 계획 발표(3月 20日)

## 1991

- DIY제품 시판(2月)
- 미주지역 노루마크 상표출원(2月)
- 페인트업계 최초로 무독성페인트 Q마크 획득(4月 2日)
- IPK, 말레이지아에 콘테이너용 도료 수출(4月 25日)
- 무공해·무독성잉크 GREEN INK 개발(5月 22日)
- 제1회 '노루가족 사진 콘테스트' 실시(7月)
- 자동차보수용도료 전용공장 준공(9月 2日)
- MI(Management Innovation)프로젝트 실시(9月)

## 1992

- 프라코, 자동차계기판 및 대형범퍼금형 개발(2月)
- IPK, EQUIP 트로피 수상
- 색채발표회(‘한국인의 숨결’) 개최(11月 3日)

## 1993

- 전국5개도시 시내버스 광고 재개(1月)
- 과학관측 로케트 ‘과학1호’ 당사 도료로 도장(6月 4日)
- ‘93 종합생산성 대상 수상(7月 1日)
- 프라코, 프랑스 알리버사와 합작으로 프라코 알리브(주) 설립(7月 14日)

## 1994

- IPK의 제관도료사업부, 대한코톨스화학(주)로 독립법인 설립(1月 1日)
- 수성 자동포장라인 가동식(4月 1日)
- 대한잉크 흑색잉크공장 준공(4月 1日)
- 자동차보수용 도장학교 개설(8月 26日)
- 의정부 영업소 개소(10月 25日)
- 색채발표회(‘한국인의 손길’) 개최(11月 9日)

## 1995

- 송탄영업소 개소(2月 7日)
- 임직원가족 공장 견학(3月)
- 새봄맞이 집단장 요령 세미나 개최(3月 14日)
- 기아자동차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3月 30日)
- 프라코, 제2공장 준공(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4月 15일)
- 세다, E-PRINT 1000 제품발표회(4月 27日)
- 노루가족 큰잔치(사생대회 및 벽일장)개최(5月 28日)
- 말레이지아에 절연바니쉬 기술 수출(5月)
- ISO 9001 인증 획득(7月 3日)
- 한일은행으로부터 50년간 장기거래 감사패 받음(7月 6日)
- 중국 고궁박물원(자금성)에 도료 납품 계약 조인(7月 12日)

창업 이후 대한잉크제조공사, 대한잉크제조주식회사를  
거쳐 1989년 2월 28일 社名을 대한잉크·페인트제조회사에서  
대한페인트·잉크주식회사로 변경했다.



안양공장 본관 옥상의 입체간판



'대한페인트·잉크주식회사'의 제품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47

1989-1995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 영업 및 납품기지로  
광주 分工場을 설치했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49  
1989-1995

1



2

1.준공식(1989. 3. 25)  
2.광주분공장 전경



국내 일반성형 사출부문에서 처음으로 금형가공기술 1등급을  
획득하고(1988. 4), 다양한 색상의 컬러의자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특수를 마음껏 누린 플라스틱사업부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프라코로 독립했다.(1989. 7. 1)

2



3



4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51

1989-1995

- 1.프라코 창업식에서 치사하는 한정대 회장
- 2.사기를 인수한 한동엽 프라코 사장
- 3.성형라인
- 4.프라스틱의자

'한국제안활동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제안그룹상을  
수상한 수지사업부 두령분임조(1989. 4. 14)





도장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색채의 이치와 현상을 설명하는  
'칼라프리젠테이션(Color Presentation)'을 실시했다.  
(1989. 5. 26)

삼미항공 試製機 도장(1989. 11. 8)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53

1989-1995



대한페인트·잉크는 건축용, 공업용, 중방식용, 자동차용 도료에  
이어 항공기용 도료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상품국제전



노루포트인트

소소드장으로 만족을!

0/IY  
0-t-ourself



1

국내외 전시회에 빠짐없이 출품하여 노루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2



3

- 1.제9회 서울 국제가정용품전  
(제2회 DIY 팬시 상품 국제전)(1989. 5)
- 2.제2회 국제 자동차전시회(1989. 4)
- 3.제6회 국제 인쇄기계 및 재료전(1990. 9)



시장개방화 등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판매증진결의대회'에서 영업사원들의 판매증진 의지를  
다졌다.(1990. 2. 24)

- 156



이라크 대 쿠웨이트戰으로 14달러 선에 공급되던 原油價가  
25달러 이상 치솟자, '高油價 위기극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1990. 9. 3)





모든 제품에 경량화, 내구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일본비케미칼주식회사(Nippon Bee Chemical  
Co. LTD)와 프라스틱 도료를 전문 생산하는 대한 비 케미칼(주)  
합작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1990. 2. 26)

# 대한페인트·잉크(주) 창업 45주년 기념식

1990. 11. 1



1990년은 창업 45주년이자, 창업주 한정대 회장이 古稀를 맞는 뜻깊은 해였다.  
(1990. 11. 1)

2



3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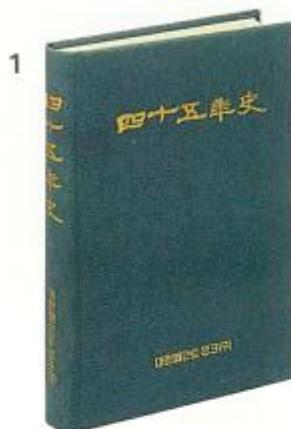
1989-1995

1.기념식장

2.내빈들에게 옛사진을 설명하는 한회장

3.기념식에 참석한 임직원

창업 이후 45년간의 역사적 발자취를 社史(4×6배판 486쪽)에 기록하고, 기업영화(1,2부 120분)에 담았다. 또한 수집된 총 700여 점의 역사적 유물을 史料展示室에 전시했다. 아울러 45주년을 기념하는 식수에서 창업100년을 향한 의지를 함께 심었다.



- 1.「45年史」  
2.비디오 테이프-「뿌리깊은 나무」  
3.45주년 기념 식수(1990. 11. 9)  
4.「史料展示室」개관식에 참석한 한회장  
(1990.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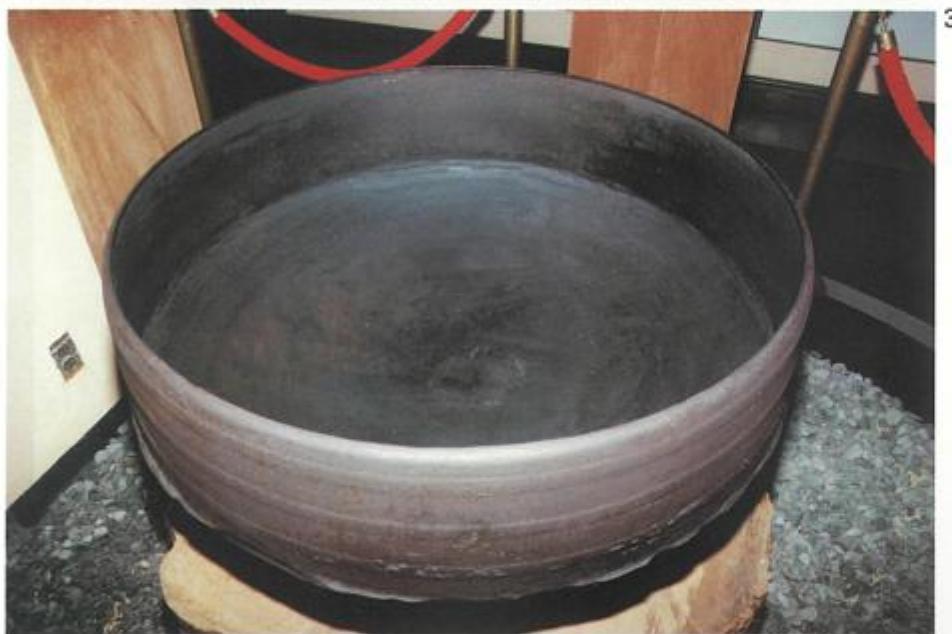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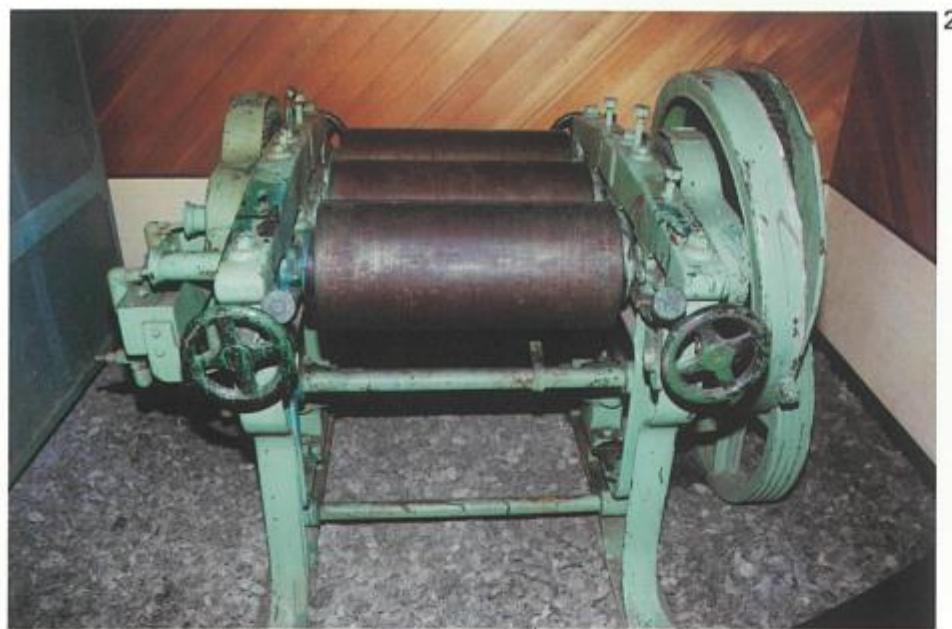


1



—162

1. 회사의 역사적 유물들이 전시된 史料展示室
2. 22인치 3本 를밀(1945년 제작)
3. 대형 솔(제작 연도 미상)
4. 인쇄교정기(1946년 제작)
5. Weather-O-Meter(1960년 제작)





-164



창업45주년 기념문화행사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의 표준색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을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개최했다.  
(1990. 11. 1)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65  
1989-1995

국내 잉크생산업체로는 처음으로 배합, 분사, 조정, 포장 등 전 공정을 자동화한 '그라비아잉크 전문생산공장'의 준공에 앞서 상람문을 올렸다. (1990. 8. 18)

1



'제1회 노루가족 사진콘테스트'에  
자연과 생활 2개 부문에 모두  
328점이 출품되었다.(1991. 4. 15-6. 1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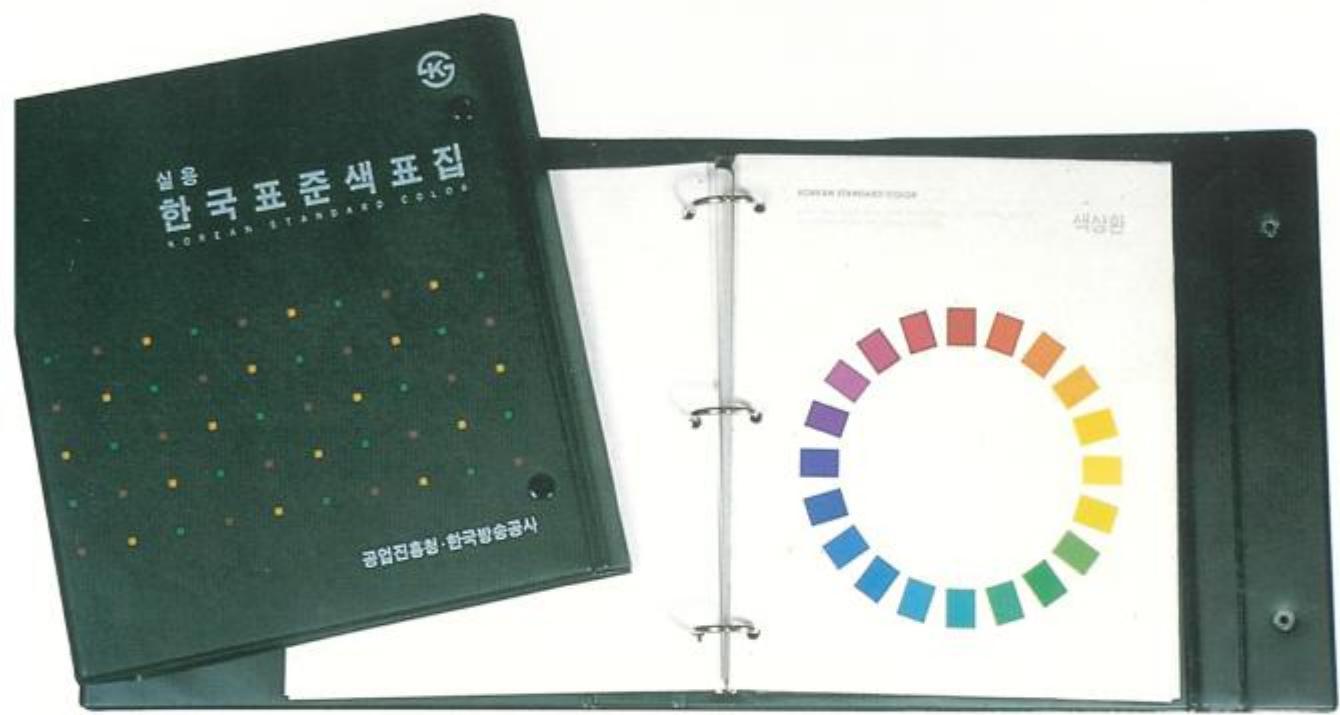
3



4



1. 자연부문 금상 '고독' -제1도료 기술2부 최한수
2. 생활부문 금상 '야교' -비서실 이해온
3. 자연부문 은상 '소금의 생성' -제1도료 생산부 신현수
4. 생활부문 은상 '저녁 노을' -노무부 이명진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67

1989-1995

「한국표준색표집」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색상의 표준화를 시도한 '한국판 면셀칼라북'으로, 노루표페인트로 도장되었다. KBS색채연구실과 협력하여 제작한 이 칼라북은, 국내 최초로 색상표준번호를 지정하는 등 공용 색상 지정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노루표페인트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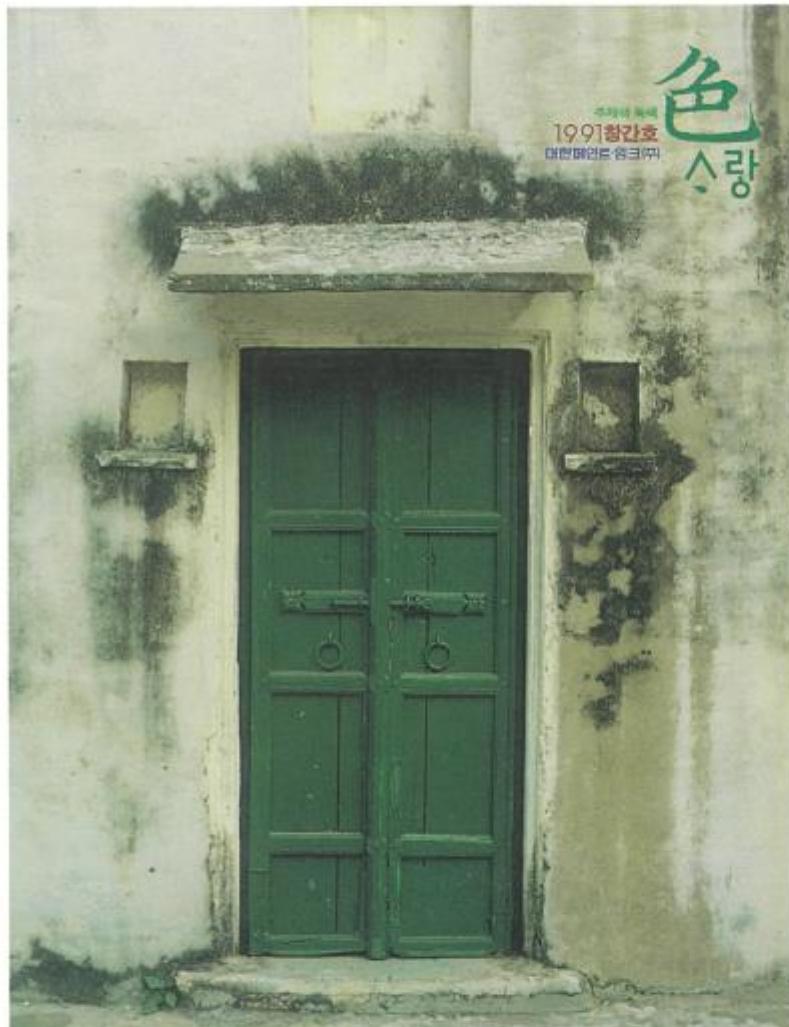
50

주년

1945-1995



한페인트·잉글



1.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안양공장에  
옥외광고물로 '창립50주년 기념탑'을  
설치했다. (650cm×430cm)
2. 기업문화 및 색채문화 정립을 위한 계간지로,  
「色사랑」(4×6배판 24쪽)을 창간했다.  
(1991. 6)
3. 업무 처리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추구하는  
생산성향상운동 'MI(Management  
Innovation)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1991. 8)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69

1989-1995



3



칼라컴퓨터에 의한 자동조색시스템을 갖추고 전공정을 자동화한  
국내 최초의 '자동차보수용 도로 전문생산공장'을 준공, 국내 자동차  
관련도로 부문의 선진화를 이루었다.(1991. 9. 2)



1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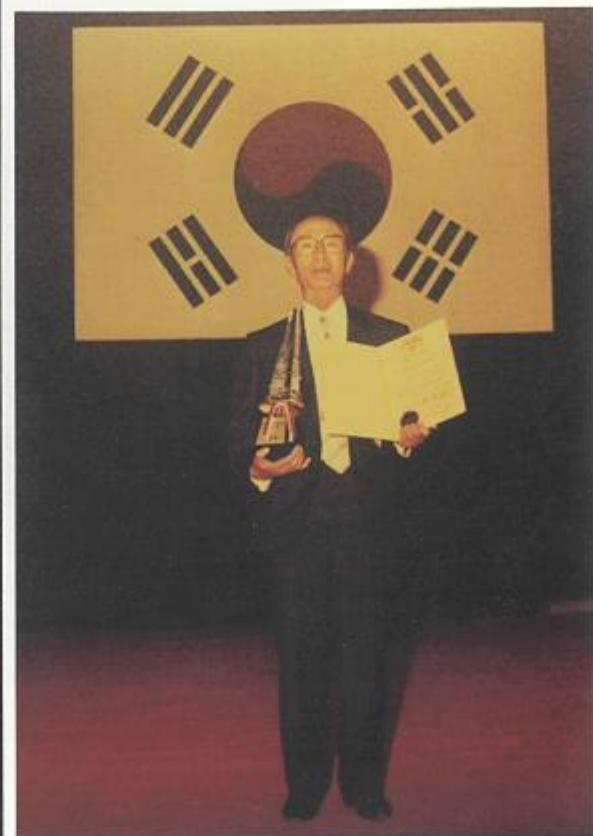
2

171  
1989-1995

1. 가정용(DIY)페인트를 총칭하는 상표명을  
'칠박사'로 결정했다.(1993. 6)
2. 주부들을 상대로 가정용(DIY)페인트의  
사용법 등을 설명하는 '봄맞이 집단장'  
세미나



'제19회 종합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영광의 '대상'을 수상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운동 추진 현황과  
성과, 경영혁신, 자동화추진, 기술혁신, 노사협조, 해외마케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도, 생산성 향상, 성공사례 등 모두 7개 부문을  
평가하여 시상한 이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경영능력과 기업의  
공신도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1993. 7. 1)



노루표인트

대한민국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73

1989-1995

‘93 생산성 향상 최우수 기업 –  
**종합생산성 대상**  
**대통령상 수상!**

창립 AR주녀의 경상

대한민국은 일크(주)가 한국출판인 분야에서 주최한  
'93종합 생산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만에 인도·영국(中)을 놓고 싸운 후산 고개 및  
수주 어민들에 강사드려야. 유관찰서 관리들과 수군의  
기록을 살펴보니 그들이 그동안

지난 48년간 서려는 오지 배반도, 인해일도, 할상구지, 몽나스티 제물포를 생산하는데 관심있었으나, 그것이 곧 국가안전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있음을 미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여와 성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회장 韓 琦 昌 大

©. 대한포인트·인크(주)



—174



대한잉크(주)는 최신설비 및 자동생산라인을 갖춘 흑색잉크공장을 준공했다. 이 공장은 흑색잉크만 생산함으로써 年產 1천톤을 목표로 했다. (1994. 4. 1)



수성도료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DNX-6500과  
DNX-7000의 포장을 전문하는 수성 자동포장라인을  
가동했다.(1994. 4. 1)



—176



94 한마음 체육대회(1994. 10. 15)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77  
1989-1995

'한국인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7회 색채발표회에서  
한국의 전통 색상을 소개했다.(1994. 11. 9)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79

1989-1995

'직장은 제2의 가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임직원 가족들을 공장에 초청, 생산라인 및 회사의  
구석구석을 소개했다.(1995. 3)



프라코는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자동차 내외장재를  
전문생산하는 '아산공장'을 준공했다.(1995. 4. 15)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81

1989-1995



세다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옵셋 인쇄기인 이스라엘  
인디고(Indigo)社의 E-PRINT 1000을 국내 인쇄기 시장에  
독점 공급하기 위해 쿼프린트사업부를 출범시켰다. (1995. 5)



창립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사생대회와 백일장을 열었다.  
(1995. 5. 28)





1



2



1.한일은행 이관우 한일은행장으로부터 50년  
신용거래 감사패를 받고 있는 한희장(1995. 7. 6)  
2.대한잉크제조(주) 시절 한일은행 거래 통장



1



2





1. 金祐顯 한국공업표준협회 품질인증센타 소장이 「ISO 9001」 인증서를  
한영재 사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1995. 7. 3)  
「ISO 9001」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 반영하고, 제품설계, 서비스에  
이르는 일련의 고객 만족 품질시스템
2. 도장학교 1기 수료식에 참석한 한영재 사장 (1994. 8. 26)
3.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전략회의 (1995. 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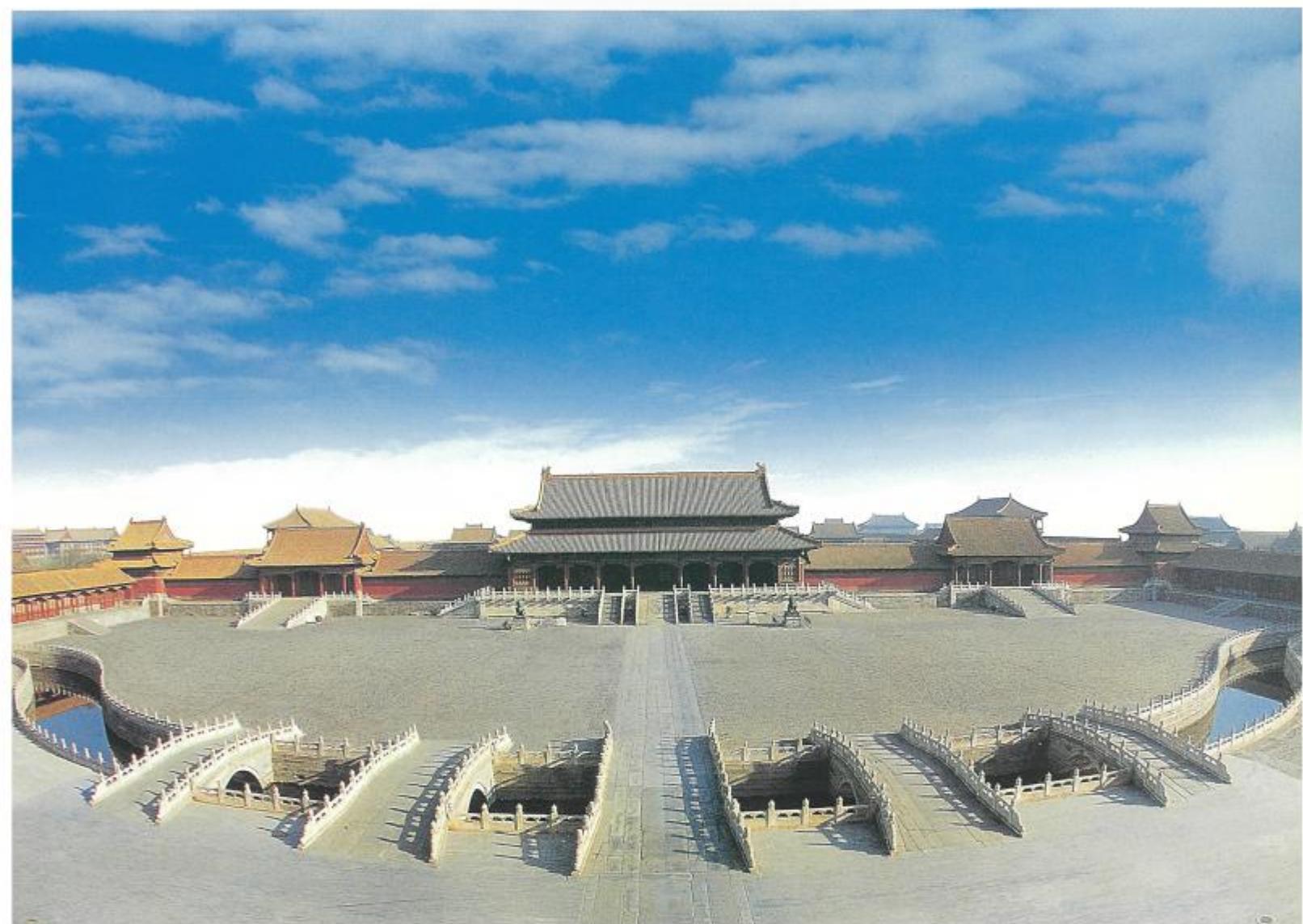


한정대 회장을 방문한 위문조 부원장

-188



자금성 보수용 도료 수출 계약  
(1995. 7. 13)



1420년에 세워진 중국의 대표적 고궁박물원인 자금성에, 영국업체 등을 제치고 노루표 무광택 자연색 페인트를 납품, 도장했다. 이는 도료부문에서 한중 경제교류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공일: 95. 8. 11.

경

노루표페인트 칠서공장 기

대한페인트(주)

페인트 현장  
노루표





지방화 시대의 제2 分工場으로 경남 함안군 칠서공단  
내에 '칠서공단'을 기공했다. (1995. 8. 11)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1  
1989-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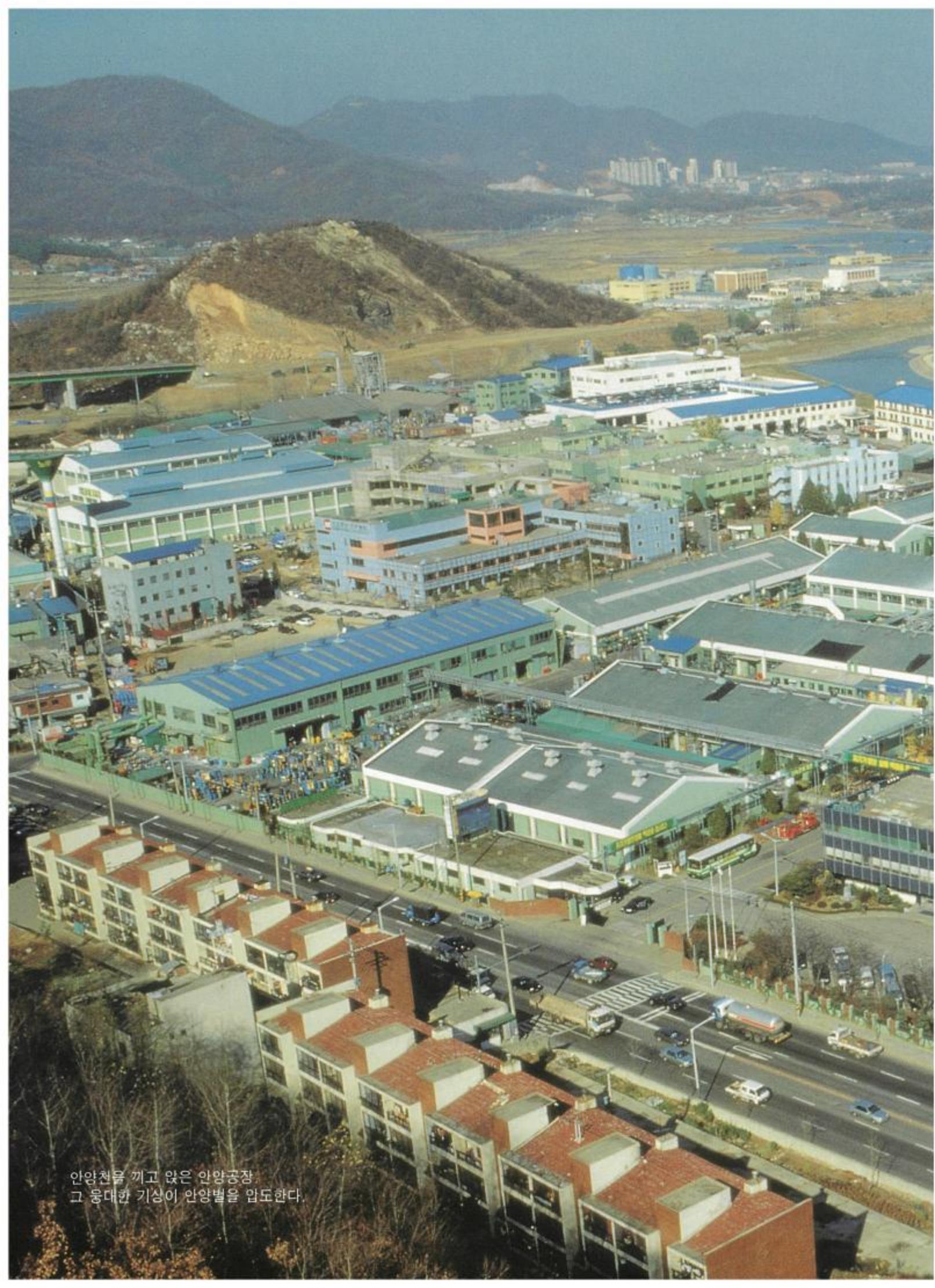
#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은 조금도 가식없이,  
준비하지 않고 사진에 담은 대한페인트·잉크의  
현재의 모습이다. 비록 일부분의 모습이지만,  
'진지한 자세'와 '즐거움'을 읽을 수 있어 그  
미래는 충분히 밝다.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 유순한 노루는 대한페인트·잉크의  
상징적 동물이다. 한정대 회장은 조금도 남을 해하지 않고  
기업을 훌륭히 일구어 내었다.



안양천을 끼고 앉은 안양공장  
그 용대한 기상이 안양벌을 압도한다.





5,60년대 발전의 터, 문래동공장

70년대 고도성장의 터, 구로공장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시대, 21세기를 맞아  
선진 종합연구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연구소.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연구원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201

1995-



## 도료조색실험

하늘 · 땅 · 바다-자연의 색  
生老病死 · 긴장과 안정 · 전쟁과 평화-이미지의 색  
그 경계선을 초월하는 것이 칼라토피아의 꿈이다.  
반복되는 실험, 그러나 연구원들의 강렬한 눈은 아주 작은  
빛의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색을 창조한다.

잉크분산실험





2



3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205

1995-

1.2. 색채연구와 색채응용  
3. 기기분석연구

'칼라토피아'를 향한 집념의 산실-색채연구소와 기기분석실





1. 조색용 도료  
2. 도장실  
3. 각종 도료 시판들  
4. Car Paint Booth

전문 도장인을 양성하는 자동차보수용도료도장학교

생산의 메커니즘은 기계설비와 작업자의 진지한 대화에 있다.

1



-208

1. 생산지원부
2. 조색
3. 분산





1



2

신설비들

3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211

1995-



- 1.수지 Kettle
- 2.자동차용 도로 전문공장의 샌드밀
- 3.수십 종의 색이 자동 분산되는 조색 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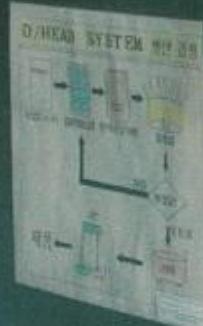


자동차보수용 도료 전문공장의 컴퓨터 자동 조색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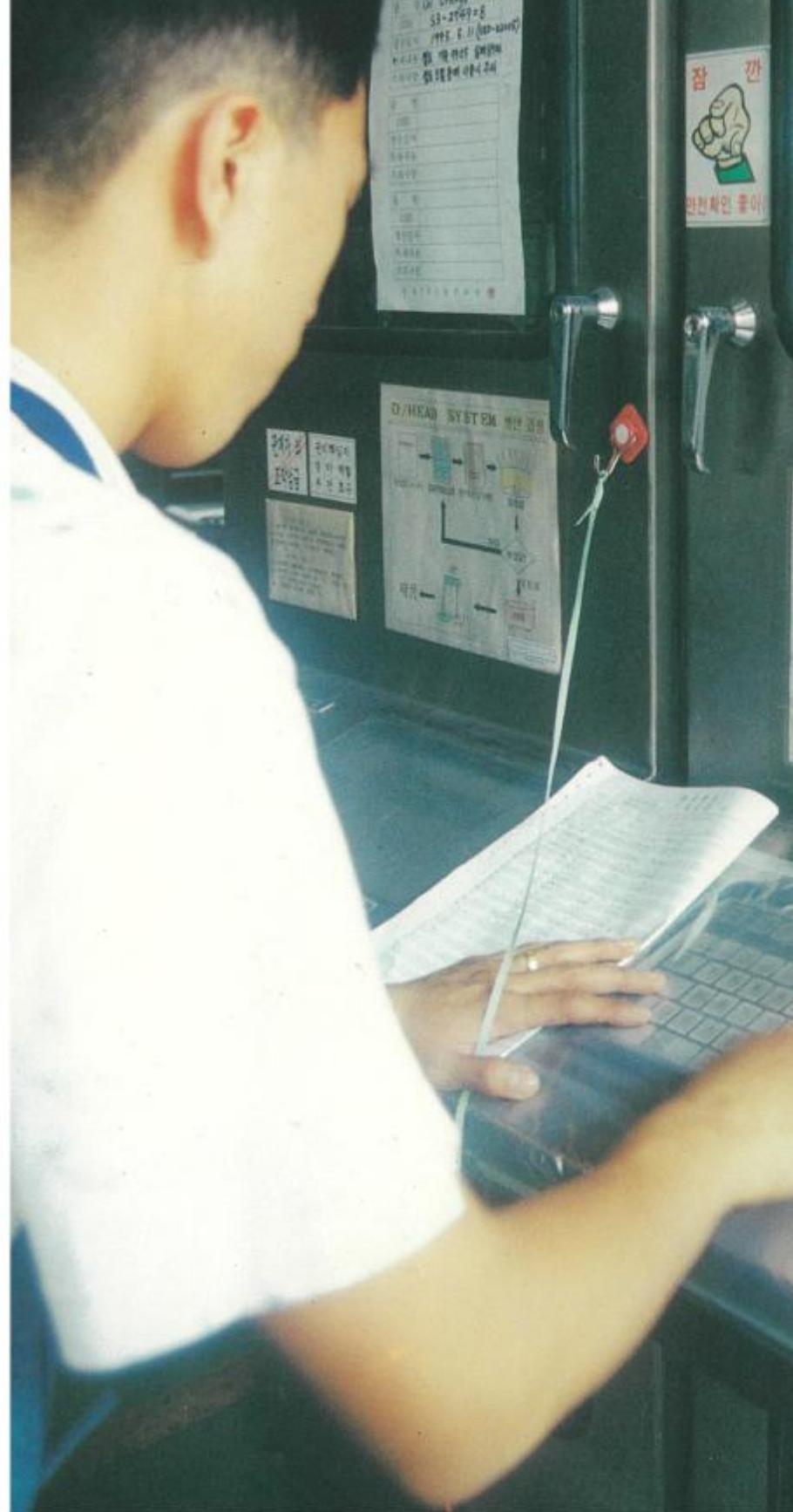


INCANEST  
INCANEST

제작자: 홍재우  
제작일: 1998. 4. 10  
제작자: 홍재우  
제작일: 1998. 4. 10  
제작자: 홍재우  
제작일: 1998. 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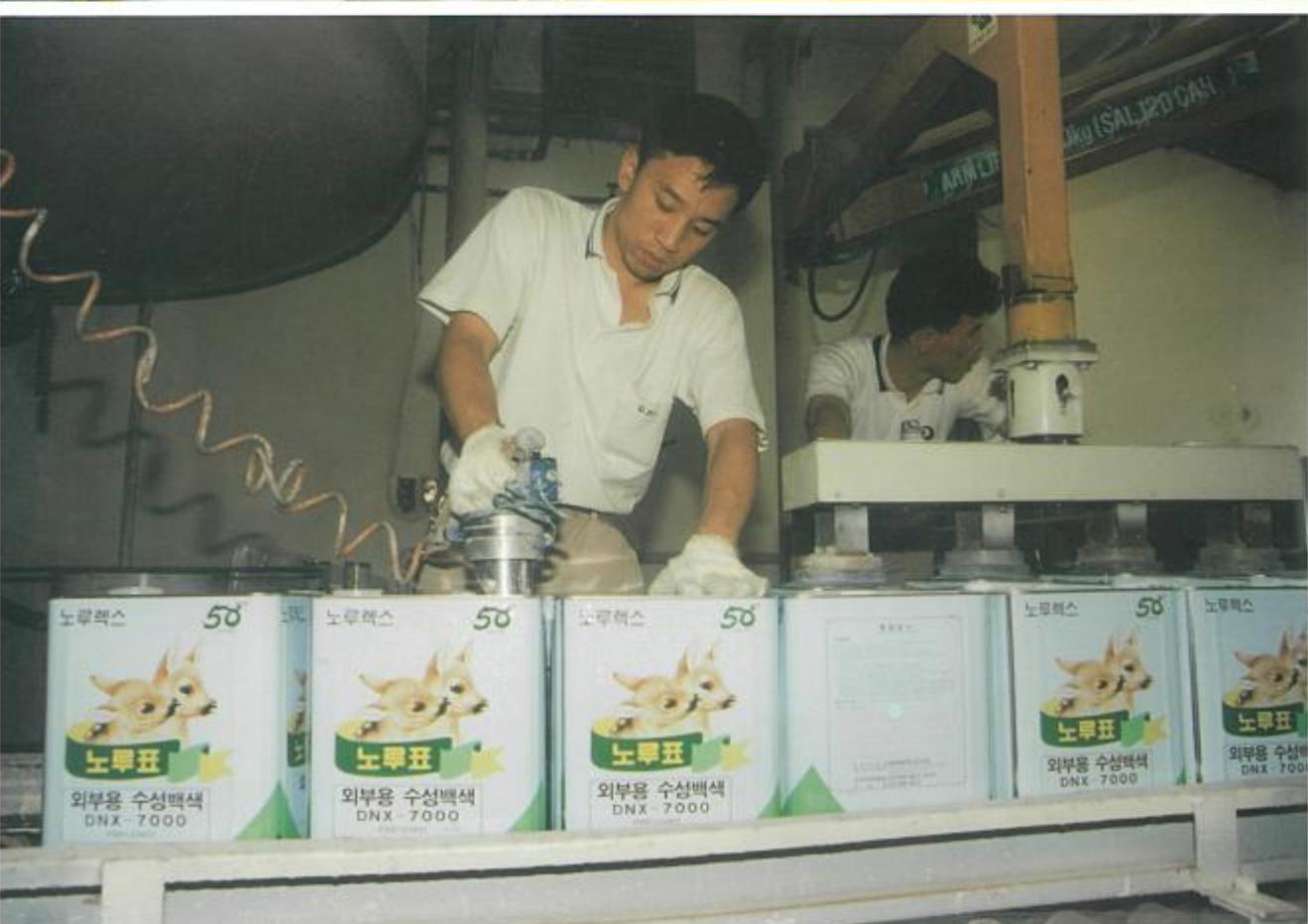
원전체인 풀어





2  
단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215

1995-

1. 원료와 제품을 자동 입출고하는 Rack System
2. 운송 크레인
3. 자동포장라인

대전

김동

포항

마산

전라

4

5

3

2



- 1.지방 출고대
- 2.원료창고
- 3.제품창고

3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217

1995-

소비자를 기다리는 제품들



출고를 기다리는 창립50주년 기획상품.  
그 옆을 지나가는 직원들의 어깨가 뿐듯하다.

노루표페인트

우레탄바니쉬  
nDV-2800

기획상품

th

50  
1945-1995

대한페인트

PEK000401 사용처  
품질표시

1. 일 nDV-2800  
2. 일 노루표페인트  
3. 일 노루, 가구, 마루, 천장  
4. 일 1945-1995  
5. 일 노루표페인트

50  
1945-1995

대한페인트

노루표페인트

50  
1945-1995

우레탄바니쉬  
nDV-2800

기획상품

th

50  
1945-1995

그린니스  
우레탄바니쉬  
nDV-2800

기획상품

50  
1945-1995

우레탄바니쉬  
nDV-2800

PEK000401 사용처: DR-291  
품질표시

1. 일 nDV-2800  
2. 일 노루표페인트  
3. 일 노루, 가구, 마루, 천장  
4. 일 1945-1995  
5. 일 노루표페인트

18l

1945-1995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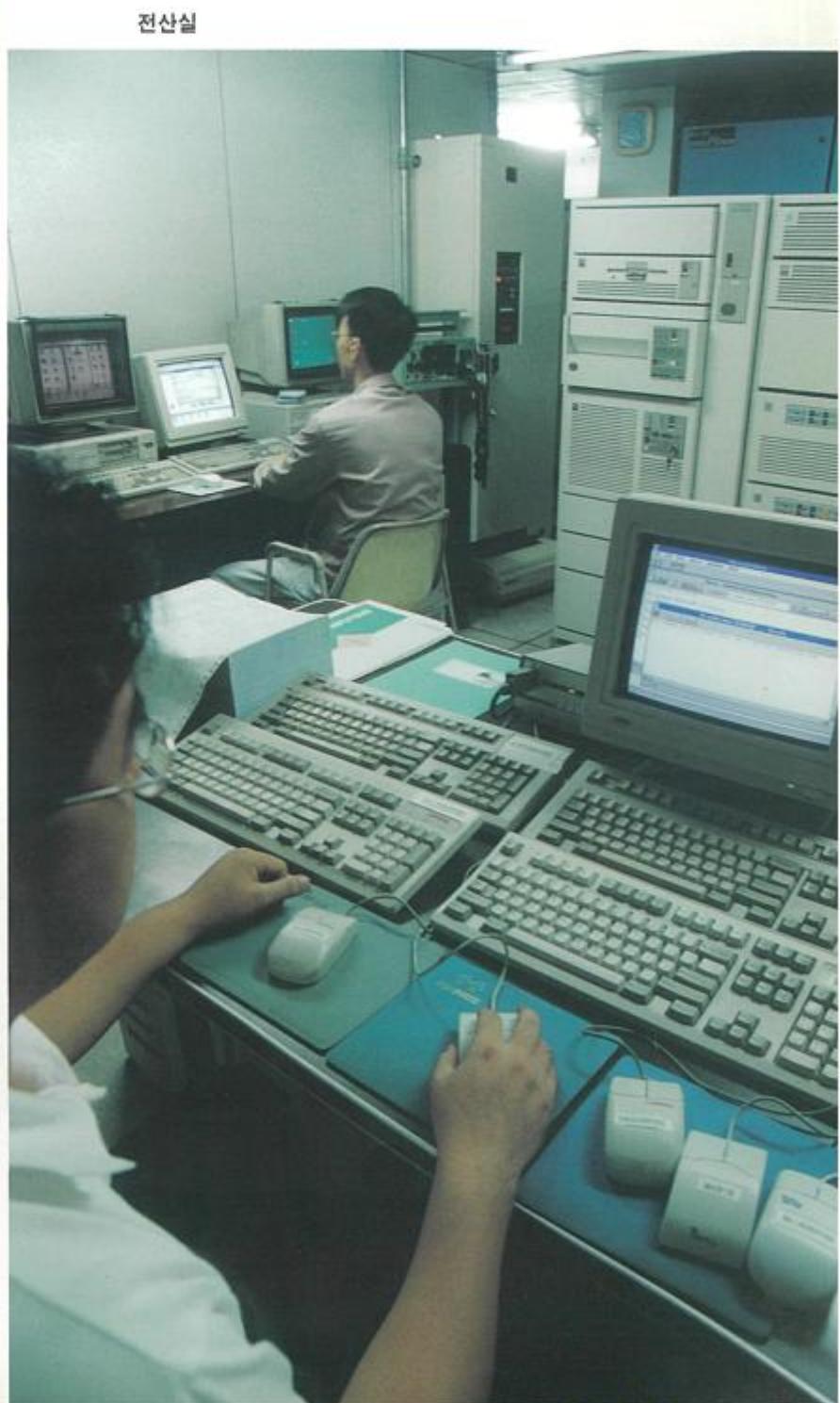
219  
1995-



책임, 화합, 최선을 다하는 자세, 여기에 첨단설비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창립50주년'의 긴 역사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다.



본관



전산실

신속 진취 개선





작업장으로 향하는 직원들, 그 가벼운 발걸음과 환한 미소에서 대한페인트·잉크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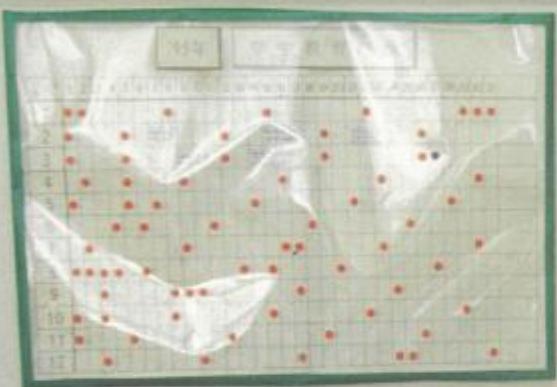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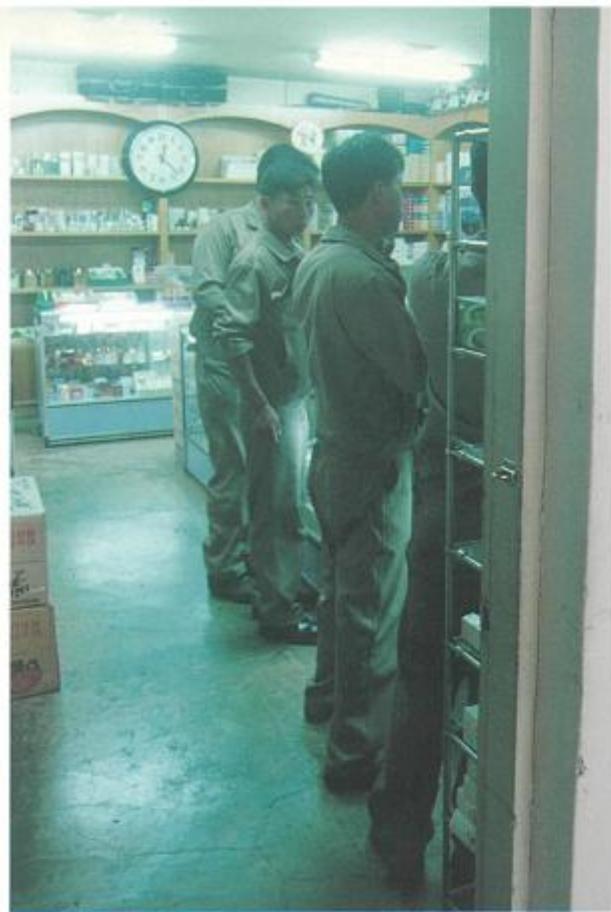


노사 공통의 바램이자 목표는  
‘무재해’와 ‘복지 증진’이다.

- 1.무재해기록판
  - 2.제한속도표지판
  - 3.노조사무실







대한페인트·잉크는 직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생활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각종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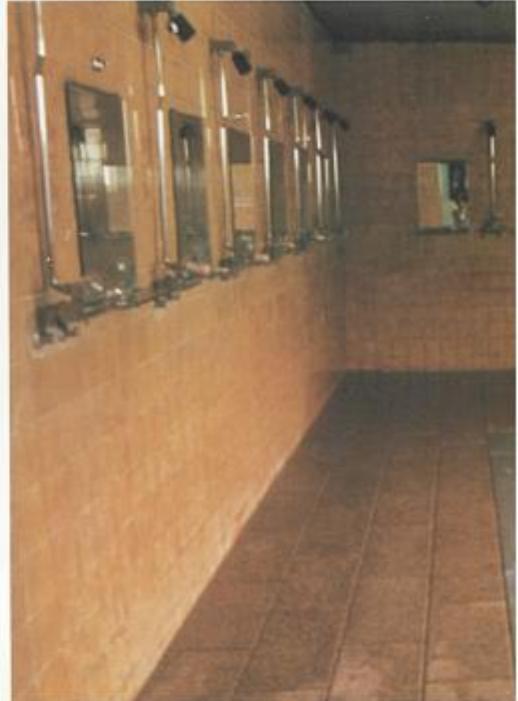
- 1.식당
- 2.새마을금고 구판장
- 3.통근버스

2



3

- 1.도서관  
2.이발소  
3.목욕탕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229

1995-

1





소비자와의 만남 - 새로운 시작

회사의 발전을 열망하는 횃불처럼 우뚝솟은  
저수탑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노루인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231

1995-

# 자기가 맡은 일



나의 祖國

# 책임을 집니다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의 조국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개인·기업·국가 모두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 위하

## 편찬후기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저희 회사가 창업한 지 꼭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창업 이후 50년간 발생된 사진들을 모아 사진집으로 묶었습니다.

한 기업의 50년 역사를 이렇게 사진집으로 엮은 것은, 사진이 주는 진실성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조심해도 다소 주관적이라는 역사 서술의 한계를 '사진의 인증하는 힘은 표현하는 힘을 능가한다'는 사진의 사실성으로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진집의 사진들이야말로 저희 회사의 가장 진실되고 감동적인 역사적 기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의 기록을 놓쳤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소중한 사진자료가 산실되어, 50년간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이 사진집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중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전현직 임직원들의 활동상을 충분히 게재하지 못했고, 계열사들의 성장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미련은 다음 사사에서 보완되리라 기대합니다.

다행히 이 사진집에 남은 역사적 사진들은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진집을 만든 또 다른 목적입니다.

창립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책임과 함께 걸어온 50년**

발행 : 대한폐인트·잉크(주)  
기획 : 창립50주년기념사업추진회원회  
(주)아문  
편집·글 : 두훈컨설팅  
디자인·제작 : 쿤러콤  
인쇄 : 양정사  
1995년 11월 1일 발행

〈비매품〉